전북
회화

전북회화



2004년 통권 제12호
전 북 회 화 회 발 행

가을 우체통

김 판 용

우체통은 가을이다.
서늘한 하늘
그 속에 익은 한 알의 사과,
청춘의 우표를 생각하면
가을바다처럼 출렁인다.

동시집 사겠다고 엄마를 조르다가
천장에 걸린 우체통형 저금통
몰래 쏟던 일원 짜리 동전으로
퍼렇게 멍든 열 살 소년이다.
양면괘지를 팔던
초소 옆 파란 피엑스 지붕 위로
붉게 타가던 저녁놀이다.

우체통 속에는 낙엽이 산다.
그대의 뜨락을 덮고 싶다고
밤 새워 몸을 털다가
가끔씩 추워지기도 하는,
눈사람을 기다리는
우체통은 가을이다.

약 력
전북고창 출생으로 전북대학교 국어교육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1991년 〈한길문학〉 신인상으로 등단
시집 〈그대들 사는 세상〉과 인문지리서인 〈모악산1 · 2〉권을 공동으로 펴냄
현재 〈우이시〉 · 〈시와 인간〉 동인
전북작가회의 이사
전라북도교육청 근무

전북회화전

김 란 방정엽 박지예 서진숙
엄기석 이광원 이승훈 이진숙
이철규 이환배 정미현 최병남

■ 전시일시 : 2004. 10. 24(일)~11. 6(토)
■ 장 소 : 국립전주박물관 본관 전시실
■ 초대일시 : 2004. 10. 24(일) 오후 3시

표지작가안내



김 란

- 전주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 중국 북경 중앙미술학원 화조화 진수 및 석사 연구생 졸업
- 개인전 2회(전주, 중국)
- 한가람 미술대전(서울 선화랑)
- 문인화 정신의 새로운 인식전, 본향전, 한마음전, 부채 바람전(서울 공평아트센터)
- 한국미술 2000년전(서울 동덕아트센터)
- 2000 제주국제미술교류전(제주 중문관광센터)
- 2000 전라 한국화제전(국립 전주박물관)
- 동방현대 채묵화전(서울 세종문화회관)
- 전북 청년작가 위상전(전북 소리문화의 전당)
- 전통의 힘-한지와 모필의 조형전(전북예술회관)
- 전주대학교 교수 작품전, 지봉전
- 현) 동방현대 채묵화회, 전북회화회, 산묵회, 지봉전회원, 전주대학교 겸임강사
-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주공Ⓐ 122-1002
- 전화 : 063)276-0205, 016-9559-0206

전북 회화

전북 회화회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전북 회화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질을 높히고 한국화에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전 · 북 · 회 · 화 · 발 · 자 · 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 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8.	하계 스케치여행:군산 개야도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7. 29	하계스케치-동상 수련장
1994. 12. 12~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전북인물 열전-예루갤러리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초청강사: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1998. 6.	정기모임-정기 전북회화회전 계획 논의
1998. 8.	하계 도예 캠프-기간:8.6~8.8 장소:백제도예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초청 세미나(주제: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초청강사: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초청특강 (주제 "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초청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3. 31	백제대학 기획 초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초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흥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9. 14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회지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 (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 김영애, 윤호, 이혜련, 최윤경, 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30~12.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2004. 3	정규총회
2004. 4. 17	신입회원환영식및야외스켓치여행(구례,산동)
2004. 6	정기모임:제2회전국청소년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운영위원모임
2004. 8	정기모임:실기대회및회화지논의
2004. 9. 22	실기대회(덕진공원)
2004. 10. 24	제12호전북회화지발간(정기전및시상식-국립전주박물관)
2004. 12	정규총회

전북회화

제17호 통권 여러경



CONTENTS

표지작가안내	3	김 란
전북회화회 발자취	4	
나의 작업노트	7	김 란
	8	박지예
	9	방정엽
	10	서진숙
	11	엄기석
	12	이광원
	13	이승훈
	14	이진숙
	15	이철규
	16	이환배
	17	정미현
	18	최병남
특별기고/비상하라. 전북의 젊은 작가들이여	19~20	곽석손
2004 전북 아트페어	21	최 원
전북 아트페어 관람 후기	22~23	엄기석
전시리뷰	24	이철규
전북회화회를 바라보며	25	이승훈
작업실탐방/서양화가 조영대	26~27	김영애
역사와 미술/전라감영	28~29	이동희
전북의 젊은작가/한국화가 고형숙	30	정미현
미술관을 찾아서	31~32	김미숙
2004 광주비엔날레 후기	33~35	박지예
나의 여행기/티벳여행	36~39	이철규
제2회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	40~51	
전북도립미술관 개관안내	52	
우진문화공간 개관안내	53	
읽을만한 책	54	편집부
회원주소록 및 편집후기	55	편집부

2004년 통권 제12호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전북회화

전북 회화
2004년 통권 제12호
전 북 회 화 회 발 행



등화이야기 / 한자+수묵담채 / 75+68cm

똑같은 매일의 일상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저 평범치 않은 하나의 다른 삶을 가지고 있다.
일상의 탈출이다.
다른 세계에서의 나의 존재는 명백히 나다.
그저 그것을 즐기고 있는 내가 여기 있다.
공존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과의 무리속에……
희미하게 어른거리는 불빛은 등불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
어디론가 여행 가 버린 유람선 한척이 등불을 보고
돌아오는 또 다른 내집을……



김 란

- 전주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 중국 북경 중앙미술학원 화조화 진수 및 석사 연구생 졸업
- 개인전 2회(전주, 중국) • 한가람 미술대전(서울 선화랑)
- 문인화 정신의 새로운 인식전, 본향전, 한마음전, 부채 바람전(서울 공평아트센터)
- 한국미술 2000년전(서울 동덕아트센터) • 2000 제주국제미술교류전(제주 중문관광센터)
- 2000 전라 한국화제전(국립 전주박물관) • 동방현대 채묵화전(서울 세종문화회관)
- 전북 청년작가 위상전(전북 소리문화의 전당) • 전통의 함-한지와 모필의 조형전(전북예술회관) • 전주대학교 교수 작품전, 지붕전
- 현) 동방현대 채묵화회, 전북회화회, 산묵회, 지붕전회원, 전주대학교 겸임강사
-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주공Ⓐ 122-1002 • 전화 : 063)276-0205, 016-9559—0206



엄마의 일기 / 장지에 먹 / 60호 / 2004년

엄마의 일기

찬바람이 불면, 옷의 두께만큼 그리움도 커진다.
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한끼의 식사와 항상 나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
한결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그립다.
나역시 한결같은 사람이고 싶다.



박 지 예

• 1998 원대 한국화과 졸 • 2002 원광대대학원 미술학과 졸 • 단체전 및 공모전
• 전라북도 미술대전 입 · 특선 6회 • 라인크로키 2회 • 누드크로키 3회 • 현) 하나미술학원, 라인크로키 · 원묵회 회원



세월 04-9 / 겹한지+수묵채색 / 100×80cm

떠나왔다.
아니, 떠나오지 못했다.
이게 아닌데,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속절없다, 덧없다,
通俗的(통속적)인 文句(문구)들을 읊조리며
쓰디 쓴 알콜 덩어리를 한 입 털어 넣는다.
歲月의 덧없음이 어제 오늘 일이랴마는...

찬란히 스러진 여름을 딛고
仲秋(중추)의 陽光(양광)은 자연을 녹이고 있다.

쏘아 놓은 화살을 찾으러 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지금
속절없이 무얼 탓하고 한탄할 것인가.
森羅萬象(삼라만상)의 변화는 이치인 것을
歲月(세월)을 부여잡는 偶(우)를 또다시 범할 것인가.

청량한 무풍의 별밤,
새삼 윤동주의 싯귀가 가슴을 친다.
이제 내 갈 길을 걸어가야겠다.



방 정 엽

•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미협회원, 전북회화회원
• 현) 무풍고등학교 • 전화 : 324-4417, 011-681-7127



청솔 / 장지에 수묵

청 솔

풀숲에 숨은 들꽃들은 누구하나 눈길 주지 않아도
고개 내밀어 바람따라 살래살래 젓고 있을 뿐
한없이 여유롭고 평온한 자태.

솔섬 뒤로 지는 해를 품에 가득 안고 있는 바다
그 위에 한가로이 떠 있는 배
파도가 밀려와도 열심히 모래집을 짓는 아이들의 풍경

하나가 되고 싶다.

-2004. 10. 3. 들꽃기행에서-



서 진 숙

- 전북대학교 졸업 • 개인전 1회
- 2004. 전통의 힘 – 한지와 모필의 조형(전북예술회관), 여류작가 영 · 호남미술교류전(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중등미술교사전(학생회관), 전라예술제(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회화회(국립전주박물관) 외 단체전 및 초대전 70여회 참여
- 현) 전북회화회, 전통미술연구회, 한국미협 회원, 전주 남중학교 재직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40-2 • 전화 : 063)286-2506(자), 011-683-2506



꿈의정원 / 한지에 먹 / 175×140cm / 2004년

생명의 이야기 Ⅵ

진분홍색의 꽃들이 뾰족하게 솟아오른 모습이 올망졸망 귀엽다. 묘지 옆에 흔하게 피어 있는 개여귀 꽃이다. 꽃이 워낙 작아서 봉오리인지 꽃을 피운 것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이다. 흔한 꽃이지만 군락을 이룬 것을 보면 분홍빛 꿈처럼 가슴 가득 설레임을 일렁이게 하는 꽃이다.

같은 분홍빛 띠고 있는 꽃향유 들꽃보다 아름다움과 향기도 없어 벌과 나비도 잘 찾아주지 않는 꽃이지만 조그마한 녹색 잎 사이에 이삭 모양으로 빼곡이 모여 핀 개여귀 꽃속에서 생명의 순환을 느낀다. 형수와 어머니 묘지 옆 한적한 곳에 이름없이 피어 잘 관찰해야 볼 수 있는 꽃, 이름없이 사라진 순교자의 꽃이다. 몇 칠 전 어느 대학 농대 교수의 장례식을 본인이 평생 사랑하는 나무 밑에 화장하여 재로 뭍은 후 나무에 본인의 명패를 붙여 수목장을 하였다 한다. 사람은 본디 흙에서 나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평범한 진리에 순응하는 장례식이라 생각된다. 참 좋은 장례식인 것 같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필요한 장기는 기증하고 썩어질 육체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의 삶이 소박하고 자연스럽다. 수목장 옆에 흐드러지게 개여귀를 심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즈려 밟고 지나 가다가 아! 이게 무슨 들꽃일까? 다시 생각하게 하는 꽃 개여귀꽃 속에서 자연의 순환의 맥박을 듣는다. 어느 시인의 시처럼 뜨지 않는 별이 있어 밤하늘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처럼 자랄한 개여귀꽃처럼 항상 제위치에서 제모양과 빛깔을 내는 소박한 아름다움이여 그대가 정녕 가을 들판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대의 향기가 은은하게 살아 가슴을 살며시 적시는 이 가을은 아름다울 것 같다.



엄 기 석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교 미술교육과 및 동대학원 미술학과 • 한국화 그 다변성전(서울, 미술회관) • 한국화 의식의 전환전(서울, 관훈미술관)
• 서울올림픽기념 한 · 일 현대미술전(전주, 전북예술회관) • 맥-조형과 의식전(서울, 갤러리도올) • 전라 한국화 제전(전주, 국립전주박물관)
• '97 동계U대회 기념 청년작가전(전주, 우진문화공간) • 전북 현대미술 단면전(전주, 삼성문화회관) • 3도 미술 교류전(구미, 미술회관)
• 1999 VS 2000 展(서울, 덕원미술관) • 새천년 한국화 오색전(전주, 전북예술회관) • 전통의 힘-한지와 모필의 조형(전주, 전북예술회관)
• 한국미협, 전북회화회 회원,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재직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우성중산타운 102동 1503호
• 전화 : 063)226-8673(자택), 063)222-8357(직장), 011-681-8673 • E-mail : cgs3344kr@hanmail.net



환희 / 160×130

땅위에서 나를 부를때.....

人間은 무엇에 의거하여 사는 것인가?
인간은 善의 이상에 의해 살고 있다고 한다.
창조적인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과정속에서 잠재적
정신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연에서 얻은 그 생명을 자기
인격의 발전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광 원

- 대불대학교 예술학부 회화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재학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1회
- 전라북도 미술대전 특선 3회 입선 2회 • 전국개천미술대전 특선 1회 • 전국춘향미술대전 우수상 1회, 특선 2회, 입선 1회
- 전국무등미술대전 특선 1회 • 전국단원미술대전 특선 1회 • 전국신미술대전 입선 1회 • 전국 아시아미술대전 입선 1회
- 그룹전 6회, 채담회전, 전남예술회관, 목포예술회관 • 전라북도 단체연립전 2회(전북예술회관) •2002년 부산환경 미술제출품
- 전국 춘향미술대전 추천작가 •열린시 창작회 회원
- 주소: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코오롱Ⓐ 3동 1104호 •전화 : 063)225-6292, 011-656-6292



슬픔 / 93×63cm

빈 집을 위한 곡

가을은 짙어만 간다. 퇴색해버린 나뭇잎을 생각하면은 슬픔이 나온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한기가 가슴을 적시면 화려했던 뒤 안의 길을 바라다보게 한다. 화려한 꽃 뒤에 오는 슬픔.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앞으로도 올 것 같이도 않은 꿈결 같은 세월 속의 이야기가 그립다. 무엇을 놓고 갈 것인가. 흔적 없이 조용히 사라져 주는 것이 좋을 듯 싶기도 하다. 이름 한자 이 세상에 내놓으려고 온갖 만행을 짓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않을까? 빈 곳, 빈 잔, 빈 살림살이, 빈 저금통, 빈 호주머니, 빈 하늘, 빈 집.... 마리아와 영면을 하는 저 가냘픈 죽음, 그 뒤 안에 오는 빈 여운,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다시 산다고 한다. 그리고 빈 호주머니를 차고 그의 곁으로 다가간다고 한다.



이 승 훈

- 全州大學校 美術敎育科 卒 同 大學院 美術科 卒業 • 個人展 1回(全北藝術會館) • 東으로 韓國現代美術展(中國西安美術學院美術館)
- 全北人物列展(全北藝術會館) • 傳統의 힘, 韓紙와 毛筆의 造形展 外 多數
- 現) 山墨會, 志朋展, 全北繪畫, 韓國美協, 傳統美術敎育研究會, ART, 益山古蹟研究會, 天秤文學會 會員, 群山大成中學校, 羅浦中學校 勤務
- 주소 : 익산시 모현동 현대3차 아파트 303동 607호 • 전화 : 011-9021-9300





거기에는...

보고싶다.

보
고
싶
다.

그립다.
. . .
. . .

문득
수화기를 든다.
. . .

문득
뒤돌아 본다.

그곳엔. . .
거기엔. . .
그리움 만 묻어난다.

보고싶다.
그립다.
오늘도
또, 오늘도
그 · 립 · 다.
보고싶다.



이 진 숙

- 원광대학교 졸업 • 개인전 7회 • 단체전 그룹전 다수 참석 • 현) 전북회화회, 원묵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한국미협 회원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거성고속 2차 912호
- 전화 : 063)274-2662(자), 063)225-6605(작업실), H.P : 011-9437-2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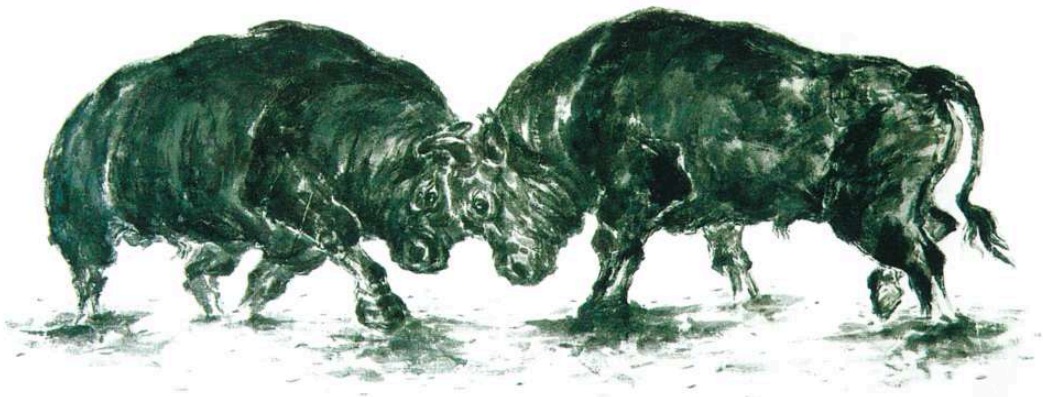
untitled(무제) / 35×40 / 한지수묵 / 2004

이번 작품은 구름이 있는 풍경을 水墨으로 표현하였다.
한국화 풍경에서는 구름 표현을 대부분 생략하는 편이다.
이는 餘白을 중요시하기 때문인데 구름표현으로 인한 화면상의 답답함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여백의 미와 답답함도 水墨으로 그림과 놀 때는 하나의 꺼리에 불과하다.
특히 心像의 세계에서 놀때는 더욱 더 그러하다.
구름을 나는 하나의 心像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2004.10.)



이 철 규

-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및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 개인전 9회
- 전북 청년 미술상
- 대한민국 청년미술제 본상
- 전북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 역임
- 단체전 200여회 참가
- 헌) 전북회화회, 시공, 우묵, 미협회원
- 예원대학교 조형미술학과 재직



소 / 145×120 / 수묵화

밀려오는 저기 저 용솟음치는 파도처럼
욕망은 끝없이 펼쳐지는 하얀 구름 사이로
흐르는 제트기류처럼 휘 긋는다.
그동안 작업에 목말라있던 것이
소나기처럼 잠깐 나의 가슴을 적시우고
사막의 모래언덕위로 스며드는구나!



이 환 배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과 졸 • 한국화 2인전(전북예술회관) • 서울 한국화 비엔날레(시립미술관/서울)
•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전(홍갤러리/서울) • 정선아라리회화제(백상갤러리/서울) • 우리의식공동체전(문예진흥원/서울)
• 의식의 확산전(예술의전당/서울) • 감성표출전(인테코화랑/서울) • 동악 71~94(운형궁미술관/서울) • 대한민국 청년미술제(인천종합예술회관)
• 전라한국화제전(국립전주박물관) • 전)전주예고출강 • 현)전북회화회 의식의 새물결회, 동국회화회 회원



默想(묵상) / 90×118 / 천에 수묵

담장을 멋지게 휘감고 내려오는
장미넝쿨이 화사합니다.
흐드러지게 핀 개나리꽃도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목련의 봉우리는
더욱 눈부십니다.

아주 작은 들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꽃이 무척 생소하게 보입니다.

아, 꽃마리!
그동안 왜 못 보고 지나쳤는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한참을 바라보니 그 꽃이 제법 크게 보입니다.
작은 꽃잎 하나하나가 빛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가슴 한 구석이 시리도록 기쁩니다.

제 나이 이제 사십하고도 하나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선이 땅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그리고 작은 것에 마음이 머무는 거라고.....



정 미 현

• 개인전 5회 • 모필의 생명력전, 전라한국화제전, 전환기의 한국화-자성과 자각전 • 한국현대미술작가초대전, 한국정예작가초대전
• 현) 전북회화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회원 • 군산산북중학교 재직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송림타워 1동 404호 • 전화 : 011-681-3560
• E-mail : hyun3560@hanmail.net



정 · 반 · 합-내재율

정,반,합-상황접근에 의한 개념들의 융합

시리도록 푸른 가을하늘과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벼이삭의 황금물결. 모악산 자락에 부서지는 가을햇살이 눈부신 이 가을에 새삼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문뜩 떠오른다. 엇그제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밤에는 열대야가 연일 계속되었던 지난 여름의 무더위는 어디로가고 이젠 청명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수확의 계절이 왔음을 새삼 느낀다.

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의 순결함이 가을바람에 산들 산들 나부끼며 계절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고 고개숙인 해바라기의 수줍음이 결실의 계절임을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속에서 우리의 삶도 그 세월의 깊이에 따른 연륜도 쌓여가고 있음을 새삼 느끼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있는 삶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더 가치있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제 문제들에 대하여 반추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우리의 삶은 과거의 연속이요 미래를 향해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는 영속성을 가진 하나의 순환인 것이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우주적인 논리 모든 것이 생성소멸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의 작업은 이러한 상반된 요인들의 생성 · 소멸인 것이다. 즉, 우리가 살면서 인식되어지는 기쁨과 슬픔, 생과 사 등 상반된 요소들이 화면속에서 화합과 분열을 꾀하는 것이다. 일정한 필획의 반복된 구조에 의한 무한한 공간감과 깊이, 다분히 장식적이면서도 환상적인 색채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동적이며 미묘하고 잔잔한 격자문양 등, 마치 생명체가 끊임없이 세포분열을 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이란 존재가 아니라 생성이요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과정임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나의 작업은 생성과 변화의 묘를 근원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처음과 끝의 구별없이 어울려져 있는 순환론적인 균질화를 보여줌으로써 강렬한 운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지화된 화면구성과 바탕, 그리고 그 구성과 바탕 사이사이의 틈새와 소단위의 색면을 구획짓는 균열같은 선묘들이 서로 연계되면서 화면 전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구조체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나만의 유일한 소우주를 표현하려 하는 것이다.

네모의 수많은 색점들이 조용히 빛을 품고 있으며, 화면에서 표현되어지는 밝고 투명한 영롱한 빛의 누벼짐, 파장, 떨림 그리고 무한히 율동하고, 미세하게 진동하면서 물결치는 빛의 순환, 중첩, 운동에 의해 소생하고 성장하는 세계의 호흡이 감지되는 것이다. 이런 소단위의 집단들이 연접된 근처의 집단과 상호작용하면서 대화를 속삭이며 움직이고, 이는 분명히 하나의 살아있는 색면이며 소우주인 것이다.

예술은 시대적 사조나 유행을 쫓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로운 감정의 표현인 것이다. 삶의 여정속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나의 작업의 깊이나 향로에 대하여 또 다시 끝없는 향해를 해야할 시점에서 삶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또다른 꿈을 예기치 않는 갖가지 현상으로 표현하고 싶다.



최 병 남

- 전남대학교 미술미술과 및 경희대학원 졸업 • 개인전 5회(정갤러리, 남태평양 피지, 전북예술회관, 갤러리고을)
- A.A.I 국제 미술전/한국정신과 전북회화회 교류전 • 오늘의 한국미술전/한 · 중화가 우호 교류전/대전 엑스포 공기전
- 한 · 일 미술 교류전/전북의 자연과 생선전 외 그룹전 · 초대전 150여회
-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전북회화회회원, GROUP 公 MEMBER, 전국춘향미술대전 초대작가

비상하라. 전북의 젊은 작가들이여!

곽 석 손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동양화전공 교수)

오늘의 국제사회 흐름 속에서 문화예술의 역할과 작용을 보면 이젠 한 지역의 감상문화나 표현공감대의 정신적인 향수의 범주를 벗어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하나의 산업으로 전향되어 가는 추세를 엿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새로운 성향은 그 중요성의 비중에 있어서도 국가 경쟁력의 산업경제에 비유될 만큼 확고해지고 있다.

하나의 단적인 예로 최근 우리 영화예술이 비약적인 발전과 세계적인 주목현상은 감독이나 배우들의 개인적인 영광과 기쁨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우수성과 민족 정서의 색다른 면모를 알리고 나아가 세계문화산업의 치열한 경재 속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화예술의 국제적인 활약과 발전의 선봉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사회적 척도의 기반이나 학력. 지역적인 갈등의 제약에 전혀 기죽지 않고 열악한 제작조건과 편견까지도 열정과 용기 그리고 희망으로 극복했다는 보도기사를 읽고 참으로 값지고 아름다운 젊음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예술의 자양분이 풍부하고 전통과 현대가 함께 공존하는 전북의 젊은 작가들도 그동안의 오랜 숨고르기를 마치고 우리미술문화 발전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주도할 수 있는 비상의 날개를 펼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10여개에 달하는 전북지역의 각 대학에서 매년 배출된 청년 작가들의 기량과 양적인 잠재력도 충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각 시에 갖추어진 전시문화공간도 도내의 작가들이 활용하는데 그리 부족하지 않으며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도 아직 희망적이라는 분석에 의해서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북지역 젊은 작가들의 활약을 보면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너무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면이 많았고 그나마도 각 대학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 지역 특유의 넉넉하고 맛깔스런 미술문화의 멋과 멋을 형성하는데 젊은 작가들의 기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며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래서 단순한 지역미술의 파수꾼 역할에서 벗어나 현대미술의 문화산업화 시대에 우리지역의 젊은 작가들도 국제적인 무대를 향하여 자신의 역량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찾아나서는 데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것 같다. 우선 그러한 방안을 찾기 위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젊은 작가들의 확고한 신념과 적극적인 참여자세이다. 한 시대의 주역이 되었던 작가들은 그 시대가 그들을 선택 해주었던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이 그 시대의 모든 부정적이고 배태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한 댓가의 결과물이었다. 지금같이 문화의 획일화와 예술의 보편화 현상이 전 세계의 미술문화를 하나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어 가는 현 시점에서 자기작업에 대한 뚜렷한 방향과 의식의 색깔 없이 누군가에게만 의존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죽음의 공간 안에 묻혀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주시하며 굴복하지 않는 자신만의 정신적인 무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다시 자신들의 후배들에게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비상의 발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한 단체나 기관 누구 한 개인의 투자와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어 미술정책과 실천이 병행됨으로써 젊은 작가들이 힘찬 날개 짓으로 넓은 세상을 향해 비상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현장은 지금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인한 미술시장의 부진, 나아가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현상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나는 그것보다도 우리의 젊은 이들이 타고난 재능과 꿈을 버리고 지나치게 현실주의적인 안목과 근시안적인 타협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적인 타성을 더 큰 위기로 여기고 있다. 미술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어렵고 그러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작가가 되기 위한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겠느냐는 원망 섞인 반문과 회의적인 반응을 교육의 현장에서 나 역시 오래전부터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먼저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작업과 맞서라. 그리고 너의 젊음을 아낌없이 투자하라. 그런 연 후에 비상하기를 기다리라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치면 마치 할일을 다한 듯이 자신의 위치를 점유하려는 태도는 작가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최대의 적이며 불안과 회의를 조장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특히 작가는 많은데 사고 싶은 작품은 많지 않다는 소비자들의 제안도 귀담아 들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과 전반적인 인식의 흐름을 종합해 본다면 지금이 바로 이 지역의 젊은 작가들에게는 하나의 좋은 기회요 반전의 계기라고 말할 수 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제대로 도전한번 해보지 않고 떠나버린 미술현장은 지금 그 어느 작업실에서 힘겨운 작업에 몰두하며 가난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자신과의 싸움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바로 그 젊은 작가들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 찬란한 비상을 이미 짐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지역에서도 이제 국제적인 비젼을 가지고 젊은 작가들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할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태껏 산업체만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유락시설 확충에만 급급했던 전 근대적인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 살아있는 정신문화 산업의 주역인 이 지역 젊은 작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연구를 지역발전 산업의 차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문화담당 기관과 인사, 선배 작가 그리고 각 미술대학의 교수들과 의식 있는 기업들이 이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관심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다시 자신들의 후배들에게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비상의 발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한 단체나 기관 누구 한 개인의 투자와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어 미술정책과 실천이 병행됨으로써 젊은 작가들이 힘찬 날개 짓으로 넓은 세상을 향해 비상하기를 기대한다.

2004 전북 아트페어

최 원 (2004 전북아트페어 운영위원장)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국소리문화전당 1,2층 전시실에서 제1회 전북아트페어가 열렸었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만 25세 이상 45세 미만의 젊고 의욕적인 작가를 부스형식의 개인전으로 이루어지는 미술견본시장으로서의 군집 전시이며 대규모 전시로서 전북미술협회가 주최, 전북아트페어 운영위원회가 주관하고 전주 시내 3개 화랑(얼, 민촌,서신)의 협조를 통해 도내에서 처음 치러졌다.

2004년 5월에 발족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7월 15일 심의결과 서양화 13명, 한국화 8명, 조각 3명, 공예 2명 그 외에 3개 화랑 추천작가 6명(서양화 2명, 조각 3명, 판화 1명)을 맞고 작품성과 독창성, 미술사적 가치, 지역의 특수성 및 화랑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삼았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작업에 몰두하는 작가들에게 개인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와 함께 열렸다.

계속되는 경제침체속에서 동반 침체되어 가는 도내 미술시장이 점점 열악해지는 현실에서 작가와 관객과의 다양한 장르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번 전북아트페어는 젊은 미술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장이기도 하였다. 전북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아트페어는 지역미술의 새로운 전시개념을 도입하는 조심스러움과 자신감을 얻는 새로운 발걸음으로 정진하게 되었다는 평과 연일 500명~700명 정도의 관람객과 작품판매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리게 되었고, 특히 미술인과 미술애호가들의 이해의 폭을 한층 가까이 갖게 되어 활력소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침체되어 있는 미술계에 발전적 계기를 마련하고 타지역 미술계에로 신선한 계기를 주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또한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미술계 안밖에서의 목소리도 많이 듣게 되었고 타지역과 비교해 강화된 수준향상과 전북미술의 위상도 갖게 되었다.

행사를 마치고 뒤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 우선 전북미협 14대 지회가 3일에 출범하면서 이강원 지회장 취임 이후 단 몇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사였기에 기획에서 다소 미흡한 면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더 많은 미술애호가와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적었고, 또한 다양한 부대행사, 아트페어 성격에 취약한 장르 참여 유도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 제2회 전북아트페어에는 이러한 취약했던 부분을 보안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능력있는 젊은 화가의 발굴과 미술작품의 시장성 확대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더 넓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로 발전되어야 겠다는 반성과 의욕을 말하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서로간의 관심과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미술인들이 자조섞인 소리지만 점점 미술인들의 층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순수작품을 지향하는 젊은 층이 귀하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하고 싶다. 이는 사회현상의 단면이기도 하지만, 젊고 자유로운 사장과 표현을 할 수 있는 젊은 작가층이 많이 형성되어야 되겠다는 점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 고민해야 되며,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축제의 한마당 전북 아트페어 관람후기

엄 기 석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모처럼 만에 미술의 축제가 열렸다.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시실 1,2층에서 1회 전북 아트페어(Art Fair)가 열렸다.

아트페어란 몇 개 이상의 화랑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 때때로 작가 개인이 참여하는 형식도 있지만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활성화하고 화랑간의 정보교환과 작품판매 촉진, 시장 확대를 위해 주로 화랑간의 연합으로 개최된다. 국제 미술계의 흐름을 한눈에 살필 수 있으며 세계 3대 아트페어는 스위스의 바젤, 미국의 시카고, 프랑스의 피악을 손꼽는다. 그밖에 독일의 쾰른, 스페인의 아르코 아트페어가 있다. 아트페어는 개최되는 도시와 참여 화랑의 목적에 따라 성격이 약간씩 달라지는데 시카고 아트페어는 미국의 현역 작가를 주로 선보이고, 프랑스 사가(SAGA)전은 판화 아트페어로 유명하며, 피악은 보다 대중적이고 축제적인 아트페어디다 휴양지인 마이애미 아트페어는 주로 라틴계열 작가들이 출품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아트페어(KIAF)와 마니프 서울국제 아트페어가 대표적이다. 전북 아트페어는 침체된 미술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만한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만 35세 이상 45세 미만의 젊고 실험적인 미술인들이 초대되어 부스 형식의 개인전으로 이루어지는 미술견본시장으로서 32인의 군집 전시이다. 미술애호가들은 한 자리에서 여러 작가의 다양한 작품 감상과 더불어 현장에서 작가와 직접 대화하며 작품과 작가의 내면 세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전북미술협회가 주최하고 전주시내 3개 화랑(얼, 서신, 민촌)의 추천을 받은 작가들로 도내에서 처음 기획된 대규모 전시이다.

전북 지역의 뜻 있는 미술인들에 의해 몇 년 전부터 거론되어온 아트페어는 현 전북미협 회장인 이강원씨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공인으로서 공약사항을 실천하여 미술애호가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 현 집행부에 박수를 보낸다.

2004년 5월에 발족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포트포리오를 제출한 작가들을 심의한 결과 서양화 13명, 한국화 8명, 조각 3명, 공예 2명 그 외에 3대 화랑의 추천작가 6명(서양화 2명, 조각 3명, 판화 1명)을 포함해 모두 32명의 작가를 선정하였다. 심의 내용은 작품의 창의성과 독창성과 성장가능성 미술사적 가치와 화단의 기여도, 지역적 특수성 등도 감안하였다 한다. 집행부 측은 젊은 작가들에게 개인전의 기회 제공과 더불어 작품판매를 통하여 작가들에게 경제적 이익도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본다. 따라서 부스비, 카탈로그, 전시회 부대 비용은 전적으로 주최측에서 부담하며 작품 가격은 공개와 정찰제를 원칙으로 하여 작품이 판매되도록 하였다.

일반 미술애호가들은 그동안 예술회관이나 화랑 중심의 개인전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미술애호가들에게 한번에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했다고 본다. 실제로 한국소리문화전당 전시실 개관 이래 최대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하니 한편에서는 성공적인 기획이었다.

그러나 성공은 외연적인 것일 뿐 미술시장 이라는아트페어의 본래 목적은 살리지 못했다고 본다.

6백 점이 출품된 이번 아트페어에서 판매된 작품은 30여 점 그 액수도 소액에 불과하다. 판매수익의 20%를 협회 발전기금으로 내놓기로 했지만, 2천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아트페어에서 발전기금은 대관료를 부담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아트페어를 통해서 3년 동안 1백 명의 작가를 소개하기로 한 전북미협은 미술시장 유통구조를 다변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경제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부분의 치밀한 전략적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전주 도심에서 전북아트페어를 알리는 포스터 한 장보기도 어려웠다. TV나 라디오 매체를 통한 홍보도 너무 미흡한 점이 있다. 내년에는 이러한 점을 보안하여 보다 준비된 아트페어가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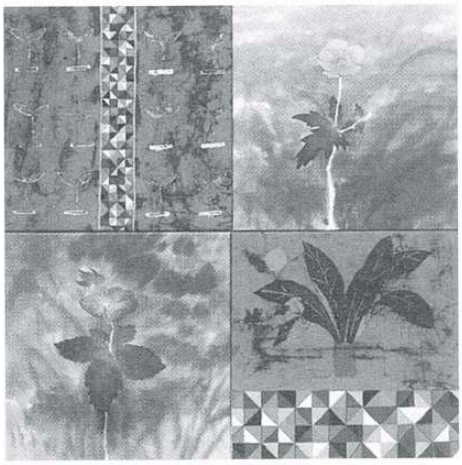
작품 가격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젊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미술애호가들의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본다. 작품 수집가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작가들이 화단에 갓 나온 작가들로서 작품과 작품가격을 연결할 때 아직 화단에서 충분한 인지도나 작품성이 면밀하게 검증되지 않은 청년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본다. 전문가의 검증 하에 유통구조의 합리화를 가져오기 바란다.

미술작품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서 상업성과 객관성을 갖도록 전문가적인 조언과 마케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지나치게 작품성에 비해 가격이 비싼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전 세대는 경제가 문화를 창출했다면 다가올 세기는 문화가 경제를 창출하는 세기라 한다. 여기에 걸 맞는 문화행정과 유통 및 체계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장성과 유통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청년작가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중년작가, 원로작가 부스도 있어야 된다고 본다. 청년작가들은 오히려 실험성이 강한 대작 위주의 기회를 주고 중년, 원로작가들의 부스를 통해서 유통구조를 변화시키는 면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도내 기업인들 정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획도 필요하다. 아트페어 기간 중 관람자 인기작가상 및 평론가 대상 등도 신설하여 다양한 호기심과 격려가 되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전북아트페어를 통해 참신한 젊은 작가의 발굴과 이를 통해 전북화단의 다향성과 장르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밖으로는 중앙화단과 국제화단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 바란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이 중앙화단과 국제화단의 수평적 구조의 부응하는 전북아트페어가 되길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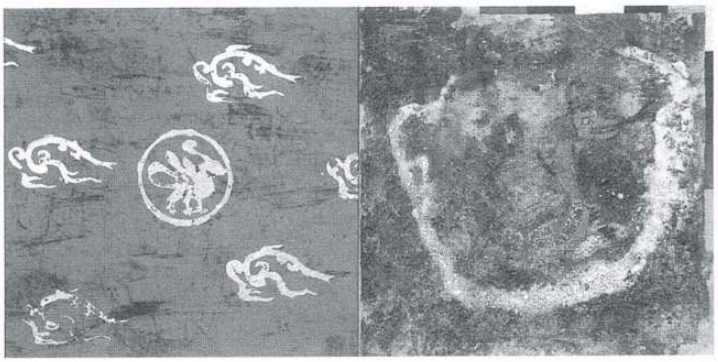
옛날에는... 이철규 수묵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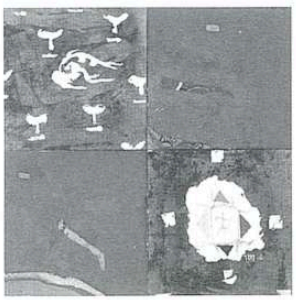
기간 : 2004. 6. 11~6. 16
장소 :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이야기 구조의 그림

단호하게 칠해진 색채로 뒤덮힌 표면, 어딘가에 자잘한 균열/크랙이 번져나가는 화면 위에 몇 가지 도상들이 얹혀져 있다. 화면의 강한 색감 속에 그 도상의 이미지들은 풍경 속의 초점이 되어 출몰한다. 이 같은 이철규의 작업은 최근 동양화의 흐름을 압축해서 화면 위에 압축해서 표현하였다. 수묵과 채색, 평면과 입체, 형식과 내용, 전통과 현대 등의 대비는 상대적인 것들이 함께 동거한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전통적인 미감과 문화적 층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건네 온다. 그의 그림은 결국 이 이야기 구조로 통어되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준다.(박영택 / 미술평론가, 경기대학교 교수)





'옛날에는...'은 한폭의 민화 또는 풍속화를 보는 듯 하다.

이철규의 그림은 아름다움에의 찬사 이전에 우리가 잊어 버리고 있거나 잃어버린 사실을 일깨워주고 되찾아 준다. 그의 관심은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옛날을 반추함으로써 메마른 우리들 감정을 적셔 주려는 데 있다.(신항섭 / 미술평론가)



인류의 영원한 꿈을 간직한 산수화는 있는가?

이 승 훈

찬비가 후루룩 내리고 나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다고 호들갑스럽다. 지금은 영하는 아니지만 첫서리가 영동 쪽에 내렸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옷깃을 여미고 화구를 챙겨서 스케치를 하기에 적당할 때이다. 나뭇가지에 잎사귀는 달랑거릴 것이고, 한 잎 두 잎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가 보이면서 여백의 미가 살아날 것이다. 이 때쯤이면 화가는 시인이 된다. 모든 화가는 본질적으로 〈시인〉이다. 시적인 것의 드러남이 과중한 화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화가도 있다. 전자의 사람은 몽상과 시가 혼동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와 몽상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고 발레리가 보았다. 김윤식의 '문학과 미술 사이'라는 책에도 있지만, 감동에 바탕을 둔 예술 창작 상태를 두고 한 말인 것으로 본다. 예술 창작은 흥분, 춤, 몸짓 등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서로 등가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 회화에서는 몽롱한 몽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원한 꿈을 그림에 옮겨 본다는 것이다. 이에 너무도 구태의연하게 그림을 표현하다 보니 관념이라는 말이 생겨 나온 것이고 진경 산수화를 이제는 더 높이 쳐 둘려는 곡해가 생겼다. 조선 후기 실경을 그리기 위해 겸재 정선은 한강과 금강산 등을 걸어서 두루두루 섭렵하였다는 것이다. 과거 국전과 도전의 동양화부분에 나오는 표현은 진경도 아니고 실경도 아니며 이상향을 그린 그림도 아니었다. 관념적인 산수화였던 것이다. 이러한 영향력은 어디서 왔는지 좀더 생각해 볼 것이지만, 이 그림양상은 조선시대 안견의 몽유도원도라는 그림과 다르다는 점이다.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관념산수의 원조로 보면 안 된다.

몽유도원도를 처음 마주한 안평대군의 감회는 어떠했을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표현한 그 느낌이 남달랐을 것이다. 그림의 발문을 쓴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림의 왼쪽에서 시작되는 봄은 안평과 박팽년이 함께 거닐면서 시작된다. 산이 점점 깊어지고 계곡도 깊어져 도원이 나오고 주변에 바위가 치솟고 구름과 안개가 펼쳐져 신비롭기까지 한다. 이 도원에서 감탄하며 詩會에 나온 최항과 신숙주를 만나게 된다. 이 만남이 우연인가는 몰라도 못 만날 것도 없지 않은가? 이 아까운 순간을 3일만에 안견에 의해 다시 만나게 된 것을 어이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 안견의 화풍에 대한 당대의 안목은 엄청 났을 것이다. 정4품 벼슬자리였던 화사(畵師)였다. 안견은 나중에 안평대군을 배반하고 세조의 시퍼런 독으로부터 목숨을 연명하지만 그 당시 처세는 그렇게 어려움도 있지 않았는가 싶다. 차후의 일이긴 하지만 몽유도원도가 상상에 너무 빠져 허무에 가깝다고 하고 곽희의 산수화 이념에 경도 된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다시 말해서 곽희풍의 관념산수에 가깝다는 점이다. 자연이란 삼라만상의 질서를 담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산수 이념이다. 또한 정치적 이념이 도사린 욕망의 그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저의로만 그림을 볼게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적 화풍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안견 독창적인 점이 발견되고 있다. 화폭의 전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가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현실 세계를 재현한 외쪽과 도원을 표현한 오른쪽, 현실과 낙원, 실제와 상상으로 병립시키고 있다. 음양기법이라고 할까 싶다. 후에 겸재의 금강전도를 흙으로 된 산과 바위로 된 산을 표현한 기법과 비슷하지 않은가? 현실은 정면으로, 도원 쪽은 부감법적으로, 도원이 감추어져 인간이 감히 엿볼 수 없는 것처럼 살짝 드러내고 있으며 광활하게 폭을 잡고 있다. 多視點은 동시적인 피카소 그림 같다고 할 수 있다. 황금빛으로 채색된 복숭아꽃의 무리는 신기에 가까운 듯한 붓놀림은 고흐의 붓 터치의 손놀림과 손색이 없지요. 세기를 넘어서 그 전율을 느끼게 하는 명화는 자주 볼 수는 없다. 이 그림은 지금 현해탄 너머에 있다.

꿈이 서린 그림을 현대 한국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실경 산수라는 명목으로 자취를 감춘지 오래이다. 초가 옆 오솔길, 숲 길, 개울가, 들녘이 보이는 구릉, 마을 몇 채 보이는 계류, 왼 딴 섬 마을 등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 같은 곳을 그리면 최고라고 본다. 고향마을 최고의 이상향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 이상의 상상을 가지고 인류의 영원한 꿈을 표현하는 역작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날이 또 오길 바란다.

작업실탐방 – 서양화가 조영대씨

전북중앙신문 김 영 애 차장

풍경이든 사람이든 가까이 다가서고 싶게 하는 건 아름다워서다. 가슴에 늘 고운 꽃등을 켜고 사는 남자 서양화가 조영대씨(44). 그도 그런 풍경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하나다. 영감에 차 있는 눈빛에, 부드럽게 감싸오는 분위기, 봄바람처럼 순하디 순한 기운을 내뿜는 그 앞에서면 누구라도 매료되기 마련이다. 성근 바람이 휘날리는 9일 늦은 오후, 범바우골 작업장에서 만난 그는 함빡 웃음을 물고 객을 반긴다.

바람도 생명으로 태어나다

그의 전시장을 둘러싼 주변은 꽃박람회를 방불케 한다. 구절초, 쑥부쟁이, 코스모스, 메리골드, 장미, 다알리아, 감나무 등등이 제 빛깔을 뽐내며 눈길을 사로잡으니 우선은 눈요기부터. 피카소의 그림이라도 들어올 리 만무하잖은가.

뜨락에 만들어놓은 설치물도 관심을 끌기는 마찬가지다. 기기묘묘한 모양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자태가 절대 꽃보다 못하지 않으니. 나무를 깎아 만든 '말많은 사람들', 뒷편에 놓여있는 하늘과 산능선의 배경을 담아야 제대로 작품이 되는 '동심'이 그랬다. '동심'에는 물감이 모자라 늘 고민했던 자신의 슬픈 자화상도 담겨있다.

울긋불긋한 천지에서 파르르 떨며 날아 오르는 새 한마리…, 바람따라 곡조를 만들어내며 울리는 풍경소리…, 화룡점정(畵龍點睛)! 이들은 이 전시에 생명을 부가하는 '마지막 점'에 다름 아니다.

부지런한 것도 죄가 되는 시대?

30여평 되는 그의 작업실은 창고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정돈이 잘돼 있다. 이 탓에 군청은 농가용 창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막대한 세금을 통보하기도 했다. 사람좋은 그지만 이에 대해선 가차없이 독설을 쏟아놓는다.

"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지, 원. 처음부터 다 보고 허가내준 사람들이 이제와서 농기구가 없다고 세금을 몽땅 내랍니다.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르겠어요. 법만 갖고 이야기하니 말이 통하지도 않고…. 바지런한 것도 죄가 되나요?"

생계를 도맡아 해결하는 교사인 아내에게 이 말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짐짓 울상이다. 다시 물꼬가 터진 독설은 정부의 문화정책으로까지 넘어간다.

"40이 넘도록 장가 못간 후배들도 엄청 많아요. 막연한 생계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것이죠. 대체 굶어죽으라는 얘긴지…. 시내에서 쫓겨 들어오다시피 마련한 작업실인데…. 정부가 예술인들에 대해 너무 무관심해요. 그림선물 마저 제약하고 있으니, 살아갈 방법이 묘연하죠."

농사지어야 한다고 해서 고구마도 심고 과수도 심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낙담하는 그. 비단 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라도 이들에게



희망을 돌려줄 때 자랑거리처럼 내세우는 개혁도 완성될 것이다.

화실엔 인상주의 화풍이 가득

작업실에 들어서자 대뜸 눈길을 사로잡는 그림이 100호 정도의 '까마귀가 날으는 갈대풍경'.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지평선을 사이에 두고 아래로는 갈대가, 위로는 까마귀 떼가 비상한다.

"빈센트 반 고호다." 역시나 작가는 이 그림을 구상할 당시 고호의 밀밭이나 여름 풍경을 생각했단다. 물감만도 50개 정도가 들어갔다니, 그의 애정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고호를 좋아했고, 고호연구에 천착해온 '데이비드 호큰'을 좋아한다는 그. 한때는 후기 인상주의에 몰입해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현대 구상회화로 돌아온 것은 변화라면 변화다.

"보고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익혀서 다시 토해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제서야 손아귀에 쥘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고호를 뛰어넘어야지요. 그게 최근 화두입니다."

그의 근작을 보면 분명 변화가 느껴진다. 형태의 소실점을 잃어버린 대신 수많은 메타포가 읽혀진다. 머릿 속에 엉겨붙는 오만가지 잡념을 빗자루로 가차없이 쓸어낸 듯 단순하면서도 웅숭깊다. 이런 그가 어디까지 관객을 감동시킬지 문득 궁금해진다.

알뜰한 애정에 눈부시게 웃다

화요일과 수요일만 빼곤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조영대 전람회. 화실이 곧 전시장이고, 전시장은 작업실이고. 게다가 자연은 전시장이 되고, 작품은 자연의 일부로 동화된다. '장자지몽' 경지에 비견할 만하다.

뜨락엔 그가 심고, 깎고, 다듬고, 칠해놓은 설치물들로 사시사철 장관을 이룬다. 이곳에선 '친환경'이라는 용어마저 무색하다. 깎고, 다듬고, 칠하면서 작가가 나누었을 무수한 대화들이 소곤댄다. 그저 무위(無爲)의 세계에서 자연을 벗삼았을 알뜰한 애정이 읽힐 따름이다.

시든 꽃냄새 나는 권태로 지겨울 때, 옷장을 열어 외출하려다 갈 곳이 없을 때, '범바우골'을 찾으면 여린 풀잎이 빚어내는 전율에 눈부시게 웃을 수 있다.

전라감영

이 동 희 (예원예술대학교 전북역사문화연구소장)

조선시대 전주부성은 그 면적이 18만여평으로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성이었다. 북쪽에서는 평양과 함흥, 남쪽에서는 전주와 대구성이 큰 성곽이었는데, 대구성은 전주성의 2/3정도에 불과하였다. 전주부성에는 오늘날의 전주시청인 전주부영만이 아니라 전라감영이 자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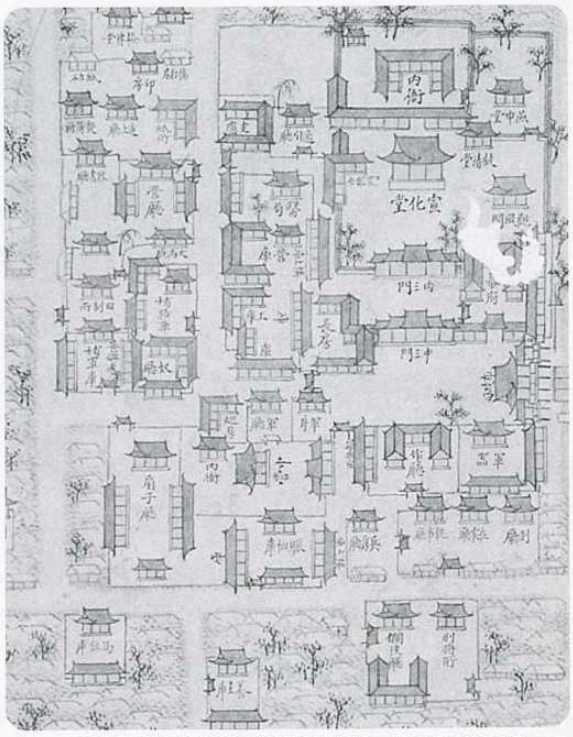
전라감영이란 전라도 감사가 근무하는 관아라는 뜻이다. 감사(관찰사)란 일도를 총괄하는 종2품의 관리로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에 해당된다. 조선시대 육조판서가 정 2품이고, 그 아래 육조 참판이 종2품이니, 감사는 직급상으로는 참판급이다. 하지만 이는 직급상 그러할 뿐, 감사는 일도의 장관으로서 행정 군사 사법을 총괄하는 막대한 권한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조선정부는 감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여 그 권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견제하였다.

전주에 이러한 전라감영이 설치된 것은 고려말 조선초의 일이다. 물론 전라도라는 이름은 고려시대에 등장하였다. 고려초인 현종대 오늘 날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합쳐 전라도라고 이름하였다. 그러나 이는 구역을 그렇게 나눈 것일 뿐 전라도를 총괄하는 감영이 설치되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5, 6품의 중앙 관리들이 안찰사라는 직함을 띠고 6개월간의 임기로 일도를 순력할 뿐이었다. 감영제는 고려말에 처음 등장하였다. 창왕 즉위년(1388) 안찰사가 도관찰출척사(감사)로 개칭되어 2품 이상의 대신이 임용되기 시작하였고, 이어 공양왕대에 임기도 1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그 예하에 경력사라는 기구까지 설치되었다. "전라도 선생안(감사 명단)"을 보면 창왕즉위년에 부임한 최유경부터 도관찰사로 기록되어 있고 임기도 1년이다. 이때부터 군현의 상위기구로서 행정도제가 전라도에 실시되었던 것이다.

전라감사는 전주부윤(전주시장)과 직급이 같았다. 즉 전주부윤도 전라감사처럼 종2품직이었다. 조선전기에는 대체로 감사와 부윤이 따로 임명되었지만, 임진왜란 후에는 주로 겸직제로 운영되었다. 전라감사가 전주부윤을 겸할 경우 감사가 전주부의 실무들까지 일일이 다 챙겨 볼 수 없음으로 종5품의 판관이 파견되어 실질적인 전주부윤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감사 부임시 가족동반여부도 겸직제와 관련이 있는데, 세종 때 전라감사가 전주부윤을 겸하면서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 단종 때 겸직체제가 혁파되면서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것도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현종 11년 겸직체제가 되면서 다시 감사가족을 데리고 부임할 수 있게 되었다.

전라감사의 전주부윤 겸직체제는 감사의 근무형태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전기에는 감사가 도 전역을 순력 하였으므로 전주부윤을 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조선후기 감사가 이제 더 이상 순력하지 않고 감영에서 일도를 총괄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겸직체제가 가능해졌던 것이다.



19세기 전라감영배치도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병풍형 지도)

조선후기 감영의 기구와 시설들이 확대되는 것도 감사의 근무형태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 감사가 감영에서 도정을 관장하고, 또 식구들까지 데려 올 수 있음으로 시설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라감영이 위치했던 곳이 현재 전북도청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풍남문에서 객사를 향해 반듯하게 뚫린 주작대로 좌편에 감영, 우편에 전주부영이 자리하여 좌감영 · 우부영의 도시구조를 이루었다. 전라감영의 전체면적은 1만 2천평정도 되었으며 그 중심 건물은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이다. 선화당(宣化堂)이란 이름은 '宣上德而化下民(선상덕이화하민)', 즉 '임금의 덕을 베풂으로써 백성을 교화한다'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선화당은 수령의 집무처인 동헌(東軒)과 달리 어느 도나 관찰사 집무청을 선화당이라 칭하고, 그 정청 중앙에 「宣化堂」이란 편액을 달았다. 반면에 군현 수령이 정무를 보는 정청은 동헌이라 하였는데, 동헌에 걸리는 편액 당호는 군현마다 달랐다.


전라감영 선화당 (1939년경)

선화당은 객사 다음으로 그 규모가 커 5칸 집에 건평이 78평이었다. 객사는 지방관들이 서울에 있는 임금에게 예를 올리는 곳으로, 지방의 궁궐로 인지되어 도시 공간배치의 중심점이 되었으며 크기도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선화당이 컸다.

현재 전라감영의 흔적으로는 선화당 주변에 있던 회화나무 한그루가 도의회건물 뒤편에 유일하게 남아 있다. 선화당 건물은 일제 강점기 《전주부사》에 사진으로만 남아 있다. 선화당은 조선 몰락 후 전북도청사로 활용되었다. 1921년 선화당 앞에 새로 도청사가 건립되면서 그 기능을 넘겨주었으며, 1951년 화재 때 도청본관과 함께 선화당도 소실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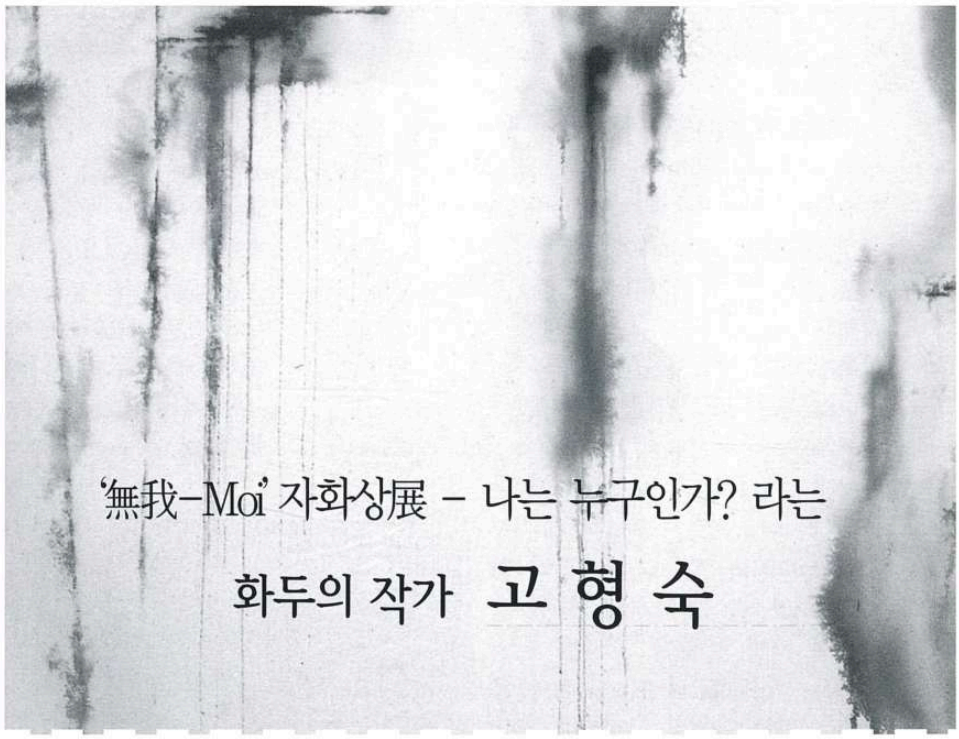
고지도를 통해 감영의 구조를 보면 감영의 정문 포정루는 남북대로변에 위치하였는데 현재 도청후문자리에 있었다. 여기에 전라관찰사가 6개월마다 군현 수령들을 상 · 중 · 하로 포폄하는데 그 결과를 사언절구로 요약해 걸어두었다고 한다. 현재 1909년경에 찍은 포정루 사진이 남아 있는데, 2층 누각으로 그 앞에는 하마비, 선정비 등이 세워져 있었다.

선화당 뒷편에는 감사 가족들이 사는 내아가 있으며, 서편으로 감사 심부름꾼인 급사들의 대기소인 통인청이 있었다. 선화당과 내아 사이에 감사가족을 돌보는 예방비장(내아 사무)실 응청당이 딸려 있었다. 선화당 중삼문 앞에는 아전들의 집무처인 작청이 있었다.

선화당 좌편 끝자락에는 종이를 만드는 지소와, 책을 찍는 인출방이 있었다. 여기에서 남쪽방향으로 더 내려오면 진상할 부채를 만드는 선자청이 크게 자리하였다. 전라감영에 전주의 자랑인 한지와 부채 공장이 속해 있었던 것이다. 한편 감영의 내아 뒷담 너머 양사재가 위치했었다. 양사재는 조선말 향교 뒷편 현재의 자리로 이전되었다.

요즘 전라감영 복원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내년 7월 전북도청이 서곡지구 신청사로 이주하면, 그 자리가 옛 전라감영이 있던 곳이었던 만큼 감영을 복원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구도심 활성화차원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적극적 개발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9월 전주시에서 개최한, 전라 감영지 활용방안에 대한 2차심포지움에서 한양대 서현교수가 어린이 체험박물관을 제안하여 도청일대 상인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서울 송파구에 한 곳 설치되어 있는데 대 성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 200만이 안되는 전북도, 60만 인구의 전주시, 서울과 비교도 안되는 이 작은 도시에서 어린이체험 박물관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무엇보다도 역사성을 상실했을 때 그 수명이 또 얼마나 갈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전라감영지는 그것이 어떤 형태든 이 일대가 가지는 역사성과 접목되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라감영의 역사문화적 성격을 바탕으로 한 문화공간으로의 활용 내지 개발이 적절치 않을까 한다.

정 미 현



'無我-Moi' 자화상展 – 나는 누구인가? 라는 화두의 작가 고 형 숙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는 자아 탐색과 성찰을 주제로, 자신의 세계에 몰입하고 있는 작가 고형숙은 독특한 감성과 표현의 직감을 가진 젊은 작가이다.

그의 작품들을 보면 빼곡이 둘러선 도시의 빌딩과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미아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수직과 수평선의 불안정한 교차는 작가가 처하고 있는 삶의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는 듯 하다.

그는 작업일기에서 "자아의 존재성에 대한 물음은, 끝을 알 수 없이 돌고 도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고형숙 작가가 올 여름 서신갤러리 기획전인 '無我-Moi'라는 자화상展에서 작업의 테마를 통해 보여준 다양한 작품은, 딱딱하고 건조한 합판 위에 아크릴로 바탕처리하여 대담하면서도 단순한 흑·백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한국화적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하학적으로 그어져 무감각해 보이는 선들은, 화면 위에서 좌충우돌 복잡하게 교차하며 작가의 내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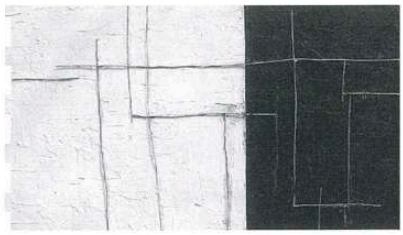
고형숙 작가는 딱딱하고 거칠게 천착되어진 그림 위에 또 다른 화면을 클로즈업 시키고 있다. 아크릴이 아닌 수묵이라는 수용적 재료로 그려진 그림은, 작가가 그토록 찾고 있는 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삶의 창일지도 모른다.

그의 그림의 주제인 자화상은, 도시 속에서 삶의 주소를 잃어버린 현대인, 넉넉한 자연을 거니는 것보다 정형화된 도시의 빌딩 속을 걷는 일이 더 친숙한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굳어버린 자화상 속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창'은, 물질 문명 속에 해체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빛과 감성 그리고 자연의 넉넉함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

작가 고형숙이 그토록 냉철하게 바라고는 우리 시대의 우울은 앞으로도 그의 작업 세계에 큰 화두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그가 보여준 또 하나의 창 속에 펼쳐 질 자유로운 빛과 향기를 계속해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우진미술클럽을 따라 미술관 순례하기

김 미 숙 (우진미술클럽 회원)

하늘에 구름 몇 점이 떠가고
가을바람에 한가로운 코스모스들이 흔들릴 때
그 순간을 화폭을 담을 수 있다면.....
잔뜩 흐린 먹구름 사이사이로
석양 무렵의 햇살이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바닷가에 서면
붓 끝에 물의 농도를 가늠해 보면 하늘을 그리고 싶고.....
빼곡 찬 온갖 야채 보따리 사이사이에서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나운 시장 통 아주머니들의 친근한 모습으로
내 마음에 따뜻한 삶의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담을 수 있다면.....
군산역앞 공터에서 지루한 하루를 달래려
기백원짜리 장기판을 뚫어져라 바라다보고 있는
칠팔순 노인네들의 주름진 얼굴에 떠올라있는
인생의 질곡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언제부터인가,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된 후로 흔히 내 정서를 자극하는 몇몇의 삶의 영상들 앞에서 나는 늘 내 화폭을 가늠해 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것도 몇 달간의 문화센터에서 배웠던 수채화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나도 내노라하는 전업 화가들처럼 그렇게 그릴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막연한 바램을 가지게 된다.

더더욱 한 달에 한번 가는 우진문화재단의 미술클럽회원으로 미술관기행을 통해 더더욱 일상에 지쳐 내 마르려하는 감정에 윤기를 더해주는 것들과 만나게 된다.

벌써 2년 전인가?

친구에게서 우연히 우진문화재단의 미술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듣는 순간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강한 이끌림을 받았다. 가끔씩 혼자서 몇 시간씩 서울행 버스를 타고 갤러리를 찾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다. 겸사겸사 서울에 가는 길에 들르는 인사동 주변의 갤러리에서 눈요기로 맛보는 미술관 기행이 아니란다.

우선 기행에 앞서 그에 따른 사전 정보를 주니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작품들을 탐방하게 되며 기획된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술관 가는 버스를 타면 화영씨가 마련해 주는 유인물을 통해 기획된 프로그램들의 감상포인트를 찾게 되고 전문가이신 이철량 지도교수님을 통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모든 작품은 감상자의 눈과 마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무턱대고 작품 앞에 섰을 때의 황당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동안 내가 참여했던 프로그램들 중에서 특히나 인상이 깊었던 것들은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열렸던 Pop-thru-out전,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의 "진경 - 그 새로운 제안전" 그리고 지난번의 서울 시립미술관의 "색채의 마술사 샤갈" 전 등이 있다.

특히나 "진경 - 그 새로운 제안전"에서는 내 나름대로의 선호화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김보희씨나 사진작가 배병우씨의 작품들은 내 code로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나 할까. 아무튼 그렇다.

또한 9월에 다녀왔던 미술 기행편인 "샤갈"전에 임하는 마음은 색달랐다. 그전에 인사동 선 갤러리에서 샤갈전을 잠깐 맛보긴 했지만 요번 기획된 프로그램은 150점이 넘는 진품에다가 평소 정말 보고 싶었던 "음악" "도시위에서" "꿈" 등의 진품을 볼 수 있다는 설레임으로 전날 잠을 설칠 정도였다. 그의 작품에 주된 모티브로 등장하는 꽃, 연인, 신랑, 신부, 동물, 마을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같은 일상의 소재들을 통해서 독특한 그만의 표현방식으로의 독창성을 맘껏 느끼게 해주었고, 색채화가로서의 샤갈의 진정한 모습을 대면케 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는 말했다.

"우리네 인생에서 삶과 예술에 진정한 의미를 주는 단 하나의 색깔은 바로 사랑의 색이다."

그러나 또한 기획된 전시회들을 통한 실망감 또한 느꼈던 프로그램들도 적지 않게 있었지만..... 어쨌든 나에게 다양한 삶의 또 다른 양식을 보여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 드린다. 이 기회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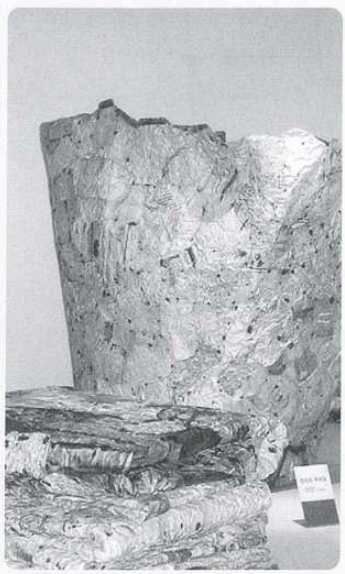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
A Grain of Dust A Drop of Water

관객이 함께 한 2004 광주비엔날레

박 지 예

세상의 모든 길은 또 다른 길로 이어진다.

순간의 갈림길에서 작가는 자신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전시가 작가는 작품을, 관객은 수동적 감상자가 되기 일수였다면 2004 광주비엔날레는 관객들이 전시기획과 작품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함께 전시를 만들었다는데 의의를 둔다. 광주비엔날레는 국제적인 문화인들의 의사소통의 공간이다. 언어, 문화, 민족은 다르지만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 주제를 통해 기와 멸, 생성과 소멸의 교차현상이자 순환과정으로서 문화생태학적 제안을 함축하고 있다. 〈2년마다〉라는 의미를 지닌 광주비엔날레는 국제 미술 전람회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더 많은 국제감상자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쓰레기봉투 〈2004, 엘아나츄이〉 (작품의 일부)
참여관객 : 솔모몬 오벵(교육운동가)

테마가 있는 1-5전시실

1. 먼지 : 전시실

현대사회 문화현상에 대한 다시보기와 재해석을 통한 '먼지 한 톨'의 개념을 구성했다. 마더스나 피카소같은 야수파의 시발점이기도 했던 아프리카의 화가 엘아나츄이는 산업화되면 신문이나 인쇄소에서 나온 폐알루미늄판을 모아 비정형 쓰레기통을 통해 부패를 상징한다. 작가는 아프리카 토속의 바느질 방식으로 이어 붙인 후 폐지용 쓰레기봉투라고 이름 붙였다. 사실 설명을 듣지 않고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듯 하다.



〈작가 : 민쥔〉 참여관객 : 리우데지앙 (작품의 일부)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이후 자유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 작품은 문화혁명의 체제적 형성에서 제한된 색채와 민중미술을 차용한 색으로 자신을 복제한 인물로 웃음은 조롱과 자괴감을 표현하고 총을 쏘는 배경은 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역설적인 작품이라고 얘기한다.

2. '물' 전시실

문화 생태학적 현상계를 비춰내는 스펙트럼 공간이자 '물 한 방울'의 시각적 공간을 연출했다고 한다. 2전시실에 들어서자 어둠 속 공간에 강의 다리를 지나면, 강에는 숫자가 천천히 또는 빠르게 변화된다. 작품 : 시간의 강, 광주를 위하여에서 숫자 0은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작가(미야지마 타츠오)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으로 변화는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품 : 시간의 강, 광주를 위하여)

안내자를 따라 작은 공간 안에 가방이 매달려 있고 TV브라운관에서는 광주시민의 소망을 담은 메시지를 적는 장면을 보인다. 여기서 가방은 욕망을 가지고 다닌다는 의미라고 한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작가는 새로운 시선에서 철학적이기까지 한 흔히 보는 소금물에 아름다움, 순결의 의미를 담은 드레스를 담궈 놓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질되는 모습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작가는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여성을 통제한 가부장적 사회를 말하고 있다. 3번째 상자의 소금의 결정체는 아름다움과 낡아진 드레스로 이중적인 양상을 갖는다고 얘기한다.

3 · 4. 먼지 +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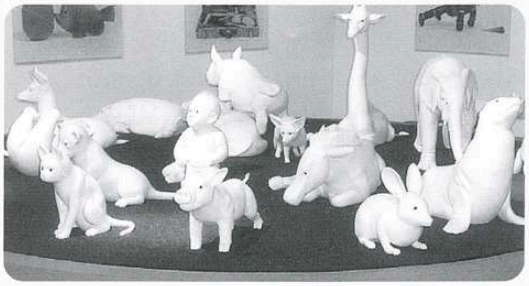
'먼지'와 '물'의 혼성적 결합을 통해 미적 가치 생산과 본질적 질서회복의 공간이다.

이 전시실에서 인상깊었던 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의 모임과 참여관객 지율스님은 "광



주천의 숨소리"라는 설치작품을 통해 광주천에서 주운 오염물을 오브제로 이용하면서 환경은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며, 광주천의 모습이 모두의 자화상이라고 역설한다.

전시장 한 쪽 편에서는 참여관객 "부안 사람들"과 임수경 손을 잡고 최초로 판문점을 걸어온 문규현은 이제 통일 운동가에서 새만금과 부안핵 폐기장 반대운동이 낳은 시대의 예술가이다. 부안 사람들이 시위하면서 신은 신발과, 옷, 부안의 백합조개로 만든 속대 조각이 출구 쪽에 서 있다.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고 싶다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4전시설에는 최연소 참여관객 주하현과 금중기 작가는 사람처럼 인형의 눈을 빌려 어린 동물을 만들었다. 작가는 어린 학생과 대상을 협업하고 소통사는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동물과 함께 우열의 순서가 아닌 공존의 의미는 하현이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작가는 자연의 이상 상태가 빚어내는 생태계의 파괴와 자원고갈의 문제를 경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라다 회장이 참여관객으로 함께 한 이경호 작가와 뻥튀기를 소재로 '행렬 달빛 소나타' 라는 작품으로 명품가방에 뻥튀기를 담아 팔고 관객은 1000원을 주고 사면서 함께 즐긴다. 대량생산과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가난, 전쟁을 뻥튀기라는 소박한 소재를 통해 작가의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이 밖에도 설치작품(작가 : 안니라티, 참여관객 : 이전용)인 "한반도에 대한 경의"를 통해 하나된 한국을 기원하면서 광주사태 등 각 지역의 일과 관련된 물건을 놓았다. 현재 일본과 독도 문제로 말이 많은 지금 작은 흙 한줌을 독도와 울릉도 중, 어느 지역을 표시했는지 다들 심각하게 물어본다고 안내가가 얘기했다.

제3자인 외국작가는 입장이 난처했을 것이다. 그리고 미용실이 설치작품이라는데서 흥미로웠다. 정은 미용실(SAA현장과 작가들) 관객은 정형화된 갤러리를 벗어나 직접 머리를 깎고, 거울이 아닌 렌즈를 통해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 상업화되어 가는 경로에서 유행을 창조하는 미용실은 상업 마케팅 속에 상실된 개인성을 살펴본다는데 의미를 둔다.

5. Thd club(5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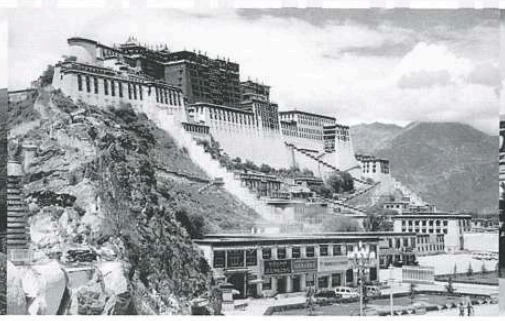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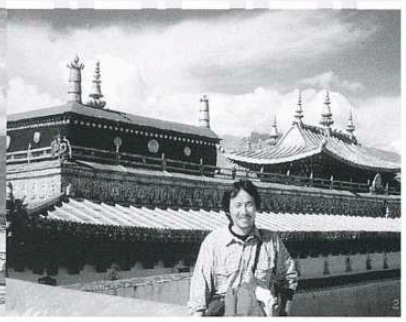
4전시실을 본 후 다소 피로해진 눈과 마음을 이 곳에서 함께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곳이다. 이 공간은 먼지와 물이 대립과 혼성의 과정을 거친 뒤 생성을 위해 나아가는 열린 한마당이다.

2004 광주비엔날레는 관객이 함께 꾸미는 전시이다. 농부, 기능공, 학생 등 40여개국 60명의 '참여관객' 이 모여 이루어낸 새롭고 독창적인 문화 행사라고 본다.

2004 광주비엔날레의 감상을 마친 후 내가 본 것을 글로 적어 다른 이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무척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그 덕에 전시를 더 자세히 감상 할 수 있었고, 앞으로 단조로운 나의 작업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친다.

티벳여행-라싸! 햇빛가득한 도시

이 철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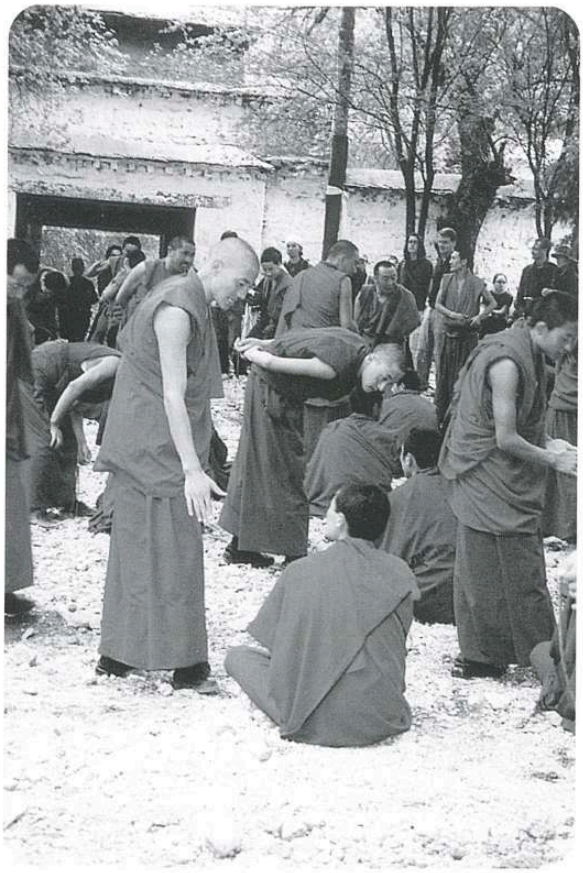
서안에서 란조우, 자위관, 투루판, 우루부치, 쿠차, 카스, 둔황에 이르는 약 25일의 실크로드 여행을 마치고, 티벳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번 여행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했지만 문명의 때가 아직은 덜 묻은 곳, 평균해발이 4000m가 되는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고원이 있는 곳,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곳! 티벳 - 그곳을 직접 살펴 볼 요량이었다. 특히 이번 티벳여행은 개인적으로 오지여행이라는 남다른 동경심의 발로도 있었지만, TV와 책으로 만난 독특한 장례 풍습에 한껏 매료되어 있었기도 했다.

*티벳은 중국에서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려졌다 한다. 당 · 송대 때는 토번(吐藩), 원과 명나라 때는 오사장(烏斯藏), 청나라 때는 당구트(唐口特)와 투벳트(圖伯特), 현재의 서장(西藏)은 청나라 강희제 때부터 사용해 온 명칭이다.

우리 일행(3명)은 꺼얼무에서 육로를 통해 티벳의 수도 인 라싸로 넘어가기로 했다. 외국인이 티벳을 들어갈 때는 한화로 일인당 약 12만원 정도의 입장료와 허가서를 내야하는데 이를 아끼기 위해 중국인 처럼 가장해서 불법으로 짚차를 빌려 넘어가기로 했다. 라싸로 가는 길은 두군데의 검문소가 있는데 이 곳만 통과하면 티벳에서 여행할 때나 다시 나올 때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했다. 꺼얼무에서 티벳으로 넘어가는 외국인은 전부 불법이라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이곳 꺼얼무 버스정류장에는 유럽인, 일본인등이 심심치않게 보인다. 꺼얼무에서 라싸까지는 무려 1,100km 대장정이다. 쉬지 않고 가면 꼬박 하루가 걸리는 거리이다.

나무 하나 없는 바위로 만들어진 곤륜산맥 줄기를 따라 짚차는 고도를 높혀간다. 해가지면서 나타나는 풍경 - 끝없는 초원지대가 형성되면서 양떼와 야크(일종의 들소)들이 보인다..탕그라 산맥(해발 5,200여m)을 숨까쁘게 넘어 가면서 머리가 부서질 정도 두통이 밀려 온다. 이것이 고산증인 모양이다. 저녁으로 먹었던 라면을 다 토해버렸다. 화물차 운전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휴게소에서 잠을 청해 보지만 두통으로 인해 거의 뜬눈으로 날을 새야만 했다. 아침에 차는 다시 티벳의 초원을 달린다. 좌우로 멀리 보이는 눈덮힌 고원과 양, 야크떼들이 노니는 초원, 끝없는 풍경이다. 탕그라 산맥을 넘어 내리막 길로 라싸에 가까워지면서 두통이 한결 나아졌다. 이렇게 차로 넘어가는 것이 고산증에 적응하는 데 빠르다 했다. 점심도 대충 떼우고 다시 출발하였다. 어느새 짚차는 초원지대를 지나 얄룽창포 강 협곡을 따라 만들어 놓은 2차선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고 있다. 운전사가 이제 한시간 정도면 도착한다 하였다. 갑자가 이게 웬일! 차가 바로 눈앞 100여미터 전방부터 차들이 꽉 막혀 있는 것이다. 산 사태가 난 것이었다. 지금 티벳은 우기(7월-9월)라 했다. 하루종일 비가 오는 우기가 아닌 저녁에 비가오며 낮에는 비가 그치는 그런 날씨가 반복되는 우기라 했다. 티벳이라는 곳이 우기 동안에는 곳곳이 비로 인해 산사태가 잦은 곳이기에 언제 길이 막힐줄 모른다 하였다. 이렇게 2시간정도를 보내고 나서야 다시 출발할 수 있었다. 갑자기 풍경이 바뀌고 있었다. 듬성 듬성 마을이 보이고 유채꽃밭들이 너브러지게 널려 있었다. 이런 풍경은 라싸까지 계속되었다. 초저녁이 되어서야 라싸에 도착하였다. 장장 26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이었다. 일단 숙소는 전형적인 티벳식 호텔인인 야크호텔이나 키리호텔로 잡기로 하였지만 휴가철 인지 빈방이 없었다. 할 수없이 비싸지만 키리호텔 옆 중국호텔로 가야만 했다. 저녁은 키리호텔에서 티벳식 식사를 하였다. 야크고기가 일품이었다. 내일은 티벳의 상징이자 티벳민족의 위대한 창조물! 역대 달라이라마가 살았던 포탈라궁을 가기로 하였다.



고산증으로 인한 두통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티벳에 가면 보통 사람들은 3-4일을 고생한다는 말을 실감하였다. 우리 일행은 다행히 비행기가 아닌 버스로 넘어 와서인지 고산증이 덜한 편이었다.

라싸시는 인구가 40만 정도 된다 하였다. 아침인데 제법 인파 들이 나와 있었다. 우리가 있는 곳은 티벳인들이 주로 사는 舊 도시이며, 구도시 주의로 중국 본토인들이 新도시를 만들어 둘러 싸고 있는 형상이었다. 어제 라싸시를 들어 올때 군(중국군)부대가 주둔해 있었는데 , 이런 부대가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었다. 아마 티벳의 계속되는 독립운동 때문인 것 같았다.

라싸는 聖地, 또는 일광성(日光城)의 뜻을 내포하고있으며 1,400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고도이다. 서기 633년 토번의 송첸캄포가 티베트 고원의 부족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산난야룽 지역에 있던 왕조의 도읍을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토번 왕조가 무너진 9세기 후반부터 명나라 초까지 여러 지방세력들이 라싸를 통치 하였다 한다. 이후 명말에 티베트 불교 겔룩파(교도에게 엄격한 계율을 준수와 경전공부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추구하는 密宗을 배우는 종파로 황색 모자를 계율을

존중하는 상징으로 여기기 때문에 黃敎라고도 한다.) 라싸 3대 사찰(감단사甘丹寺,색랍사色拉寺, 철방사哲蚌寺)을 연이어 건립함에 따라 17세기 이후 청나라의 책봉정책으로 인해 달라이 라마의 세습체제가 티베트의 정치 종교상의 최고 지위를 얻어 티베트의 권력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포탈라궁(布達拉宮)까지는 숙소에서 그리 멀지않았다. 10분 정도 걸어가자 눈앞에 하얀 성이 우뚝 서있다. 그 규모가 대단하였다. 라싸 평원 위에 우뚝 서있는 라싸의 상징 다웠다. 홍산(紅山)이라는 가파른 산세에 의지해서 궁전을 지었기에 그 비범한 기세와 장엄한 자태는 압권이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의 하나라 하였다. 포탈라궁은 7세기 경에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송첸캄포왕이 당나라의 문성공주(文成公主)를 아내로 맞아 후세에 과시하기 한 목적이었다 하니 문성공주의 위세를 알만 하다. 현재의 모습의 포탈라궁은 17세기 중엽에 달라이라마 5세가 청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아 증축되었다 한다. 그 규모는 13층 건물로서 110미터가 넘는다. 궁전은 크게 백궁과 홍궁 두개로 나누어지며 5개의 금빛 기와 지붕이 있는데 그 금빛이 휘황찬란하다. 또한 포탈라궁은 하나의 거대한 예술보고로서 티벳의 수많은 문물과 불상, 보물들이 가득 차 있다한다.

포탈라궁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유산이다 보니 인원을 제한하고 있었다. 입장료도 한화로 15,000원이나 하였다. 궁으로 오르는 오르막길은 힘이 들었다. 고산지대이다 보니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가빠왔다. 포탈라궁 내부는 어두운 편이었다. 방 곳곳은 촛불들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으며 수많은 불상과 달라이라마의 상(전의 달라이라마 모습을 불상처럼 제작하였다)들을 모셔 놓았다. 그 양옆으로는 수많은 불경들이 상자에 넣어 진열해 놓았다. 손바닥만 한 불상에서 5미터에 이르는 불상 까지 그 크기가 제각각이었으며 실제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화려하게 입혀 놓았다. 한가지 생소한 것은 방마다 고양이가 있었다는 것인데 바로 쥐를 잡기 위한 용도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다. 라싸의 어느 사원에 가더라도 항상 쥐를 -그것도 상당히 많은- 볼 수 있었다. 포탈라궁의 홍궁은 불신을 모시고 종요의식을 치르는 곳으로 역대 달라이라마의 영혼탑과 각종 불당이 있는 곳이다. 5대 달라이 라마의 영혼탑은 14,85미터나 되며 5대 달라이라마의 유체가 모셔져있다 한다. 특히 영혼탑은 아래부터 위까지 11만량의 황금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통치자로서의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는 활불윤회(活佛輪廻)로 통치자를 정해왔는데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는 전 티벳과 후 티벳을 나누어 통치하였다. 1대 달라이라마와 1대 판첸라마 때부터 그들은 그들의 지위를 활불윤회로 계승하고있다. 지금까지 14대 달라이라마와 10대 판첸라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는 모두 티벳승려들에 의해 부처의 화신(化神)처럼 되었고, 그들은 죽은 후에 다시 영동(靈童) 즉 영적인 아이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 활불윤회로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간단하게 점심을 한 후 드레퐁 사원으로 향하였다. 드레퐁 사원은 라싸에서 버스로 10여분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드레퐁 사원은 티벳 최대 규모의 사원이자 역대 달라이라마들의 母寺인 사원이다. 철방(哲蚌,드레퐁)은 '쌀더미' 라는 뜻으로 멀리서 사원을 보면 산 중턱에 흰쌀을 쌓아 놓은 것 같아서 지었다 한다.

우리 일행은 입장료를 아끼기 위해 순례자들이 통행하는 길로 가기로 하였다. 대개 순례자 길은 사원을 돌아가는 길이기에 입장료를 내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보다는 상당히 멀었다. 오르막 길을 20여분 걸은 뒤에야 드레퐁 사원에 도착하였다. 고산지대에서 20여분 걷는 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었다. 사원 내부는 마치 미로를 걷는 기분이었다. 그 정도 비슷 비슷한 티벳식 건물들이 빼곡하였다. 곳곳에 우리 절로 말하면 대웅전

같은 건물들이 수도 없었다. 대개 사원 내부는 비슷비슷하였다. 다양한 불상들과 역대 달라이라마들의 모습을 불상형태로 만들어 비단으로 된 옷을 입힌 뒤 모셔 놓았다. 특히 이 드레퐁 사원은 서적이 많기로 유명한 사원이며, 포탈라궁이 완공되기 전까지 이전 달라이라마가 거주 하던 사찰로 유명하였다. 사원에서 나오는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었다. 티벳에서의 모든 사찰은 순례자 길로 가면 입장료를 받지 않는 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미리 정보를 입수 하였음) 저녁에 라싸 시내로 나가 보았다. 지금 라싸는 현대식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옷차림 부터가 서구식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며 세계 유명 메이커 매장(가전,의류,신발,패스트푸드등등)들이 곳곳에 입점해 있었다. 또한 호텔에는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전용실이 있었으며, 호텔 가까이에는 PC방까지 있었다. 저녁에 야크호텔에서 한국인 들을 만날 수 있었다. 혼자 여행온 한국 여대생의 소개로 좀 더 싼 호텔로 방을 옮기기로 하였다. 스노우 랜드(雪域飯店)라는 호텔인데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티벳식 게스트하우스로 대조사(조캉사원)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었다. 호텔에 들어서자 마자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인사를 한다. 중국에 교환교수로 온 부산대교수님, 두사람의 젊은 여행객- 한사람은 세계일주 중이며 한사람은 일주일 째 묵고 있다 하였다. 라싸에 대한 살아있는 많은 정보를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한다. 새벽까지 내린 비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개는 그런 날씨의 연속이다. 오늘은 오전에 라마교도의 순례성지인 대조사를 오후에는 세라사원을 둘러 보기로 하였다. 대조사는 호텔 바로 뒤에 위치해 있었다. 대조사 주위로는 팔각거리(八角街,바코르 Barkhor)가 형성되어 있는데 일종의 라마교도들의 순례길이면서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수 많은 순례객들이 시계방향으로 대조사 주위를 돌고있는 모습을 보면 티벳불교에 대한 티벳인들의 믿음이 어느정도 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았다. 대조사 입구에는 많은 순례객들이 오체투지(五體投地)를 하고 있었다. 대조사 안에 들어서자 오른쪽으로 수많은 마니륜(瑪尼輪)이 설치되어 있었다. 순례객들은 마니륜을 돌리면서 사원에서 불공을 드리고 있었다. 대조사 지붕은 포탈라궁 같이 화려한 황금으로 도배되어 있었는데 파란 하늘과 맞다아있는 황금색깔의 지붕은 보색대비로 인해 더욱 더 화려함을 더해준다.

버스로 세라사원으로 출발하였다. 라싸시에서 북쪽으로 3km정도 에 위치한 사원으로 일종의 불경학원이다. 라싸 3대사찰 중 가장 나중에 지어진 사원으로 산기슭에 자라는 '세라' 라는 야생장미의 이름을 따 세라사원이라 명명하였다한다. 역시 우리는 입장료를 절약하기위해 순례자길을 택했다. 어제 호텔에서 세계일주 중인 젊은 여행객이 알려준 순례자길은 정확하였다. 드레퐁 사원의 순례자길보다 훨씬 짧은 거리여서 한결 걸음걸이도 가벼웠다. 사원안의 건물은 절도있게 배치된 드레퐁사원과는 달리 조금은 무절제하게 배치되어있었다. 대전과 벽화를 구경하고 있는 중 갑자기 사람들의 야단법석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닌가! 바로 그 유명한 세라사원 스님들의 불경토론하는 광경이었다. 한분 앉아있고 한분은 서서 앉아있는 스님에게 마치 혼을 내듯 큰소리로 불경을 토론하는 광경인데 마치 서로 말다툼하는 모습으로 착각이 될 정도였다. 세라사원은 대전에 모셔논 미륵불과 벽화로 유명한 사원인데 각종 벽화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이후 사뮈에사원과 약왕산 등 라싸 주변의 사원들을 둘러 보았다.

이번 티벳에서의 일정이 짧았던 관계로 티벳 제2의 도시 시가체, 양파첸(지열지대),아리지구, 남초호수, 천장대(天葬臺, 조장하는 곳)등을 가볼 수 없었지만 티벳에 대한 설레임을 어느정도는 풀어주는 알찬 여행이었다. 이글을 쓰는 순간에도 벌써 마음은 티벳으로 달려가고 있다.(2004.10.)

제2회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

■ 장　소 : 국립전주박물관 본관 전시실

■ 기　간 : 2004년 10월 24일(일) ~ 11월 6일(토)

■ 시상식 : 2004년 10월 24일(일) 오후 3시

· 주　최 : 전북회화회

· 주　관 : 실기대회 운영위원회

· 후　원 : 우진문화재단

· 대회일시 : 2004년 9월 22일　AM 10:00~ PM 2:00

· 대회장소 : 전주덕진공원

· 협　찬 : 신한화구 / 전주화방 / 남문화방 / 동양당 / nanara.com
미대입시 / 아트앤디자인 / 자화상 / 청석 / 청



제2회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

인 사 말

이 환 배
(전북회화회 회장)

문화비평가나 문명론자들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중심의 미학적 체계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생태학적인 생명논적인 상생의 미학이 후기 산업사회의 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 현실은 여전히 서구 중심의 교육철학과 미학에 근거하여 초중고 미술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어 전통교육은 숨쉴 곳도 적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는 문화가 경제를 창출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후기 산업사회에서 형성된 서구 중심의 현대미술은 분석적이고 테크놀러지 중심적인 서구 철학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 조형 미술 전반에 전통적 가치와 심미관을 밀어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서구 중심의 조형론이 모든 미술교육의 주류로서 자리매김 함으로 전통미술과의 심각한 불균형을 낳게 하였습니다. 서구 분석주의적 조형론을 바탕으로 한 현대미술이 우리에게 남겨준 긍정적인 요소는 통념과 상식을 거부하는 정신, 실험성과 표현과 재료의 확대등이다. 그러나 현대미술은 대중들에게 너무 난해하고 어려운 미술이 되었다. 또한 인간의 무의식속에 있는 미적 감동의 원형질을 자극할 만한 부분이 적고 한계가 있음을 지난 반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전통회화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 올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지역성과 전통성을 바탕으로 한 보편성을 획득한 양식과 개념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의 전통을 이해하는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글로벌 시대에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예술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통에 대한 미학적 접근, 철학적 인식, 고대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도 함께 추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는 이러한 제 문제를 풀어가는데 한 방식과 실천적 해동으로 추진되어온 행사입니다. 아직 시작이 미진하여 그 영향력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주변의 관심 있는 분들에 의해 회를 거듭할수록 질과 양에서 향상되리라 기대합니다.

전통에 대한 무관심과 몰이해는 결국 자국의 문화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부터 지필묵에 대한 철학적 사고와 실제 사용을 통해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통회화 실기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을 이해시키고 전통회화의 정신적 계승과 전문가를 배출하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밑거름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실기대회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진문화재단 이사장님과 각 미술대학 교수님들, 여러모양으로 협조해주신 미술 관련 종사자들, 전북회화회 회원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통회화의 맥을 이어가는 미술제가 되도록 또한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예술적 상상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산 체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정어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

우진문화재단 이사장상(고등부)
전통문화고 3학년 **김소리**



우진문화재단 이사장상(중등부)
구이중 3학년 **이다래**



최우수상 (고등부)

예원예술대학교 총장상



선화예고 3학년 **김은지**

홍익대학교 수원미술교육원 원장상



가락고 3학년 **김 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상



전통문화고 3학년 **김영호**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상



전통문화고 2학년 **임지혜**

최우수상 (고등부)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상



전통문화고 3학년 **정단오**

전주대학교 학부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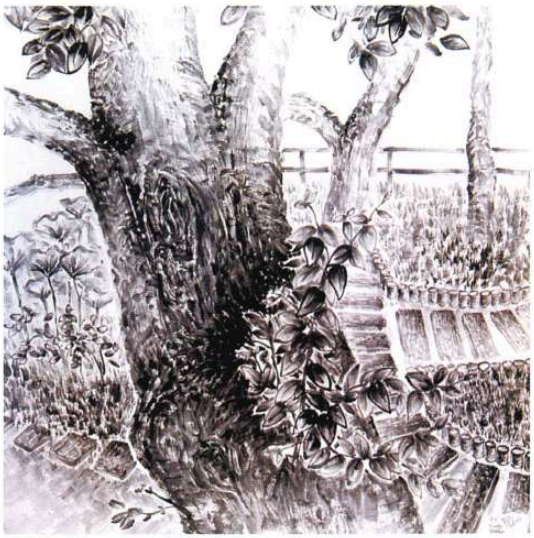
덕암고 2학년 **이순호**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상



전통문화고 3학년 **홍지선**

전북회화 회장상



근영여고 2학년 **박세현**

전라북도 교육감상



전주예고 3학년 **최백헌**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전통문화고 2학년 **황승수**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상



쌘뽈여고 3학년 **강수영**

최우수상 (중등부)

전라북도 교육감상



운림중 3학년 **이효정**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구이중 3학년 **천영주**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상



서전주중 3학년 **강승우**

(고등부) 우수상



전통문화고 3학년 **설휴정**



전통문화고 3학년 **강진혜**



진북고 3학년 **이창민**



전주예고 3학년 **김지영**



수피아여고 2학년 **김민하**

우수상 (중등부)



효문여중 2학년 **박윤하**



효문여중 2학년 **박윤지**



상관중 3학년 **이다영**



완상중 1학년 **남영은**



우전중 3학년 **진초혜**

제2회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

실기대회 운영위원

이철량 교수 (전북대학교)
송수련 교수 (중앙대학교)
김문철 교수 (전주대학교)
서일석 교수 (원광대학교)
이재승 교수 (예원예술대학교)
한진만 교수 (홍익대학교)
윤여환 교수 (충남대학교)
강경자 (도교육청 장학사)

심사위원

이철량 교수 (전북대학교)
서일석 교수 (원광대학교)
이재승 교수 (예원예술대학교)
윤여환 교수 (충남대학교)
김문철 교수 (전주대학교)
고찬규 (중앙대학교)
김학곤 (한국화 화가)
이환배 (전북회화회장)

제2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한국화) 실기대회 수상작 명단

〈고등부〉

수상명		이 름	학교	학년	참가부분
대상	우진문화재단 이사장상	김소리	전통문화고	3학년	풍경
최우수상	예원예술대학교 총장상	김은지	선화예고	3학년	정물
	홍익대학교 수원미술교육원 원장상	김 현	가락고	3학년	정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상	김영호	전통문화고	3학년	풍경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상	임지혜	전통문화고	2학년	풍경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상	정단오	전통문화고	3학년	정물
	전주대학교 예체능학부장상	이순호	덕암고	2학년	풍경
	원광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상	홍지선	전통문화고	3학년	정물
	전북회화 회장상	박세현	근영여고	2학년	풍경
	전라북도 교육감상	최백헌	전주예고	3학년	풍경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황승수	전통문화고	2학년	풍경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상	강수영	쌘뽈여고	3학년	풍경
우수상		설휴정	전통문화고	3학년	풍경
		강진혜	전통문화고	3학년	풍경
		이창민	진북고	3학년	정물
		김지영	전주예고	3학년	풍경
		김민하	수피아여고	2학년	문인화
특선		정수나	전통문화고	2학년	풍경화
		하지수	전통문화고	2학년	풍경화
		한효라	전통문화고	3학년	풍경
		박현린	호남제일고	1학년	풍경
		최도숙	강원예고	2학년	정물
		김새롬	강원예고	2학년	풍경
		유가희	쌘뽈여고	1학년	풍경
		신나라	전주예고	3학년	풍경
		최재형	선화예고	3학년	풍경
		권오상	정신여고	3학년	정물
입선		김슬지	전통문화고	1학년	풍경
		조아란	전통문화고	2학년	풍경
		이세진	전통문화고	2학년	풍경
		박사랑	전통문화고	2학년	풍경
		이종철	전통문화고	2학년	풍경
		배민음	전통문화고	2학년	정물
		박서연	전통문화고	2학년	풍경
		김규리	전통문화고	2학년	문인화
		신혜리	강원예고	2학년	풍경
		양지웅	강원예고	2학년	풍경
		김영은	강원예고	2학년	풍경
		이민하	북원여고	3학년	정물
		홍태림	계원예고	3학년	정물
		김빛나라	원주여고	2학년	정물
		이상석	해성고	3학년	정물
		임두현	동암고	3학년	풍경
		홍두리	서울미술고	3학년	정물
		전은희	강원예고	2학년	정물
		김명주	근영여고	2학년	풍경

수상명	이 름	학교	학년	참가부분
입 선	박진경	전주예고	2학년	풍경
	김예나	선화예고	3학년	정물
	문정란	광주여고	1학년	정물
	성은정	광주여상	2학년	문인화
	박소라	전통문화고	3학년	정물
	김은지	전통문화고	3학년	풍경
	정민지	전통문화고	3학년	정물
	박선양	전통문화고	3학년	정물
	김태리	전통문화고	2학년	문인화
	황인현	전통문화고	2학년	문인화
	백수진	전통문화고	2학년	풍경
	장보영	전통문화고	2학년	문인화

〈중등부〉

수상명		이 름	학교	학년	참가부분
대상	우진문화재단 이사장상	이다래	구이중	3학년	풍경
최우수상	전라북도 교육감상	이효정	운림중	3학년	정물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천영주	구이중	3학년	풍경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상	강승우	서전주중	3학년	정물
우 수 상		박윤하	효문여중	2학년	풍경
		박윤지	효문여중	2학년	풍경
		이다영	상관중	3학년	정물
		진초혜	우전중	3학년	풍경
		남영은	완산중	1학년	풍경
특 선		김보미	서전주중	3학년	정물
		강지예	임실동중	3학년	정물
		정지영	전주남중	2학년	정물
		송지해	김제여중	1학년	정물
		김예지	군산대성중	2학년	문인화
		김새롬	군산산북중	3학년	풍경
		박세지	풍남중	3학년	정물
입 선		김정하	서전주중	3학년	정물
		유현희	양지중	3학년	정물
		양혜정	임실동중	3학년	문인화
		한지은	김제여중	3학년	정물
		김소진	김제여중	3학년	정물
		이민하	김제여중	1학년	정물
		강경은	김제여중	1학년	문인화
		이중관	풍남중	2학년	풍경
		이정원	우전중	3학년	풍경
		박은정	전주예중	3학년	풍경
		송지해	김제여중	3학년	문인화
		최윤아	금성여중	3학년	정물
		이성현	군산대성중	3학년	문인화
		박남희	군산대성중	3학년	문인화
		백지혜	군산산북중	3학년	풍경
		채유진	군산산북중	2학년	풍경
		최윤진	군산산북중	2학년	정물
		김애진	구이중	3학년	정물
		오보라	풍남중	3학년	정물

전북도립미술관
Jeonbuk Province Art Museum

| 건립배경 |

전북도립미술관은 예향 전라북도에 미술인의 창작을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의 균형적인 발전과 21세기 전북 문화창달의 새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현대미술의 전 장르를 수용하는 종합미술관으로서 전북도립미술관은 도민의 문화예술 휴식공간이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술문화의 산실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 시설 |

위　　치 :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1068-7
부지면적 : 6,350평
건물면적 : 1,185평
연 면 적 : 2,088평
주요시설 : 전시실5, 자료열람실, 아트샵, 카페테리아, 어린이실기실, 강의실, 강당, 야외공연장

| 기구 및 조직 |

기　구 : 1실 2담당
조　직 : 정원 14명 (관장1, 실장1, 담당2, 직원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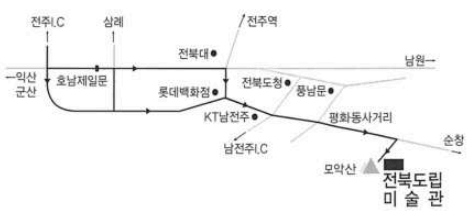
| 미술관 주요업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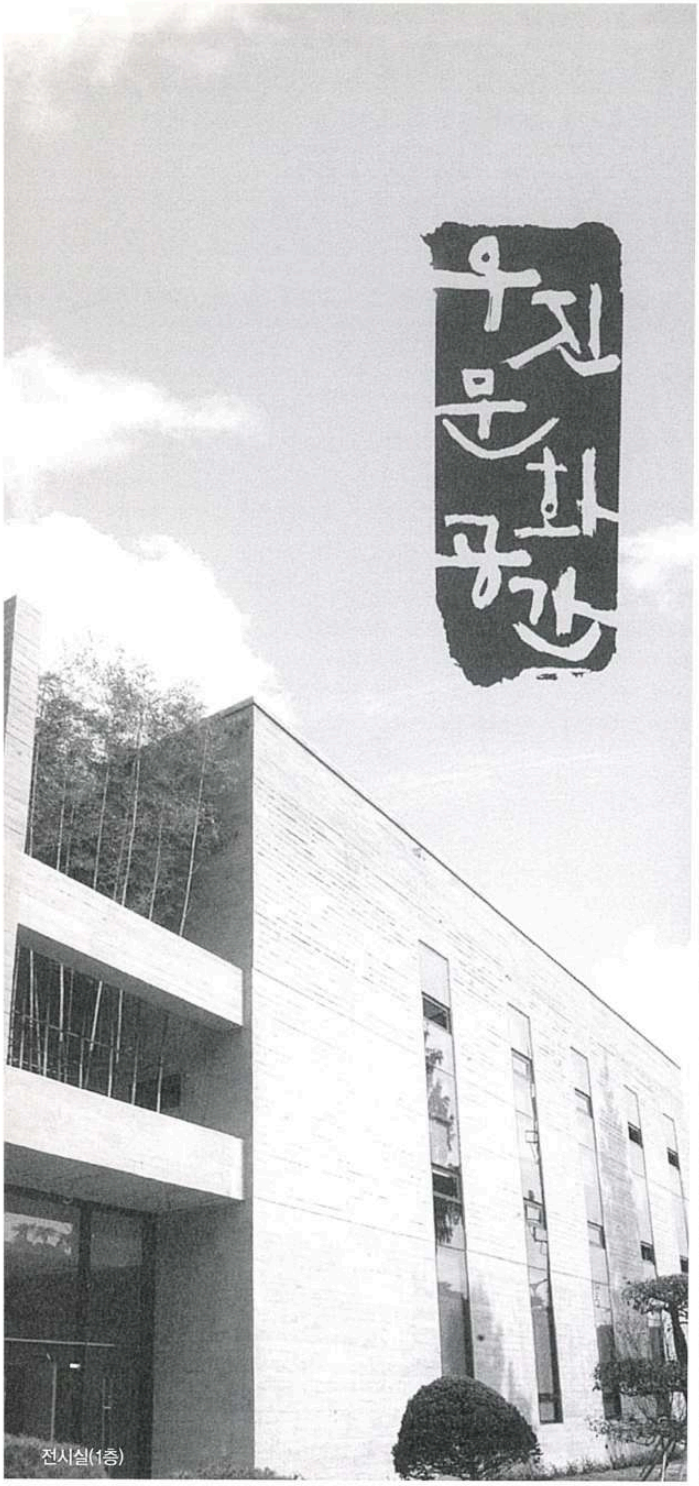
· 전시기획 · 수집과 보존 · 사회교육프로그램 · 문화행사



전북도립미술관
Jeonbuk Province Art Museum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1068-7
TEL. 063. 222-0097(代), 221-5693~4
FAX.063. 280-4353





| 새로운 공간마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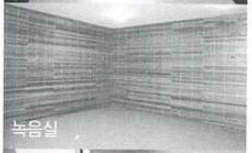
자양은 충분하되 결실의 과정이 지난하였던 척박한 지역 문화예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우진문화재단이 최초의 공간설립 13년만에 전용 문화공간을 신축하였습니다. 새로운 공간 마련은 우진문화재단만의 숙원은 아니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보다 본질적으로는 지역 문화 예술인의 깊은 바램이었습니다.

90년대 이후 도내에는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시설은 크게 증가했으나 시민께 작품을 제공할 생산자들인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우진문화재단은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왕성한 욕구와 이에 부응하려는 문화예술인,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진문화공간을 신축하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선보인 우진문화공간은 아무런 문턱 없이 문화예술인과 단체에게 헌사됩니다. 시설은 필요로하는 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에서 이뤄지는 창작 및 연구활동은 시민과 도민의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예향 전북의 위상을 높이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연습실


세미나실


녹음실


개인연습실

우진문화공간이 예향 전북의 자랑하는 문화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주시민, 전북도민 여러분의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진문화공간 신축개관의 기쁨을 지역 문화예술인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문화재단 이사장 **양 상 희**

| 이용시간 |

전시실 10:00-20:00
녹음실 09:00-23:00
연습실 09:00-23:00
세미나실 09:00-23:00

| 시설규모 |

대지 250평, 총건평 500평

友進文化財團
WOOJIN CULTURE FOUNDATION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062-3번지
TEL. 063. 272-7223(代)
홈페이지 www.woojin.or.kr
E-mail woojin775@naver.com



읽을 만한 책



사비나의 에로틱 갤러리 〈이명옥/해냄/12,000원〉

황홀을 꿈꾸는 열정의 화가들, 순간을 영원으로 새겨낸 불멸의 에로티카!
녹아내릴 듯 매끈한 로댕의 대리석. 분내. 살내에 취해 흐드러진 르누아르의 여체, 야릇함을
걷어낸 에곤실레의 벌거벗은 몸뚱이, 세상의 모든 창에 무거운 커튼을 드리운 뭉크의 음울한 몽상...
이 세상에 없는 것을 꿈꿨던, 그리고 단 한걸음도 벗어남 없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갔던 화가들,
이들은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인생의 찬란한 순간들을 붙잡아 영원의 예술로 탄생시켰다.



팜므 파탈 〈이명옥/다빈치/일반장편 3,000원〉

치명적인 유혹,매혹당한 영혼들 팜므파탈

늘어뜨린 머리카락에 밀랍처럼 흰 피부
피처럼 선연한 붉은 입술과 게슴츠레한 눈빛
이 성적 매력이 넘치는 미인이 바로 전형적인 팜프 파탈의 모습이다.
그녀는 순종적이거나 유순하지 않고 뻔뻔스럽고 냉정하며 싫증을 잘 내고 심술궂은 말과 행동에다
무관심의 악의를 내보인다.
왜 남자들은 이처럼 잔인한 여자들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할까.
왜 예술가들은 이러한 주제에 매료되어 팜므 파탈에 관한 수많은 예술 작품들을 남겼을까.
이책은 예술 작품 속에 보여지는 다양한 팜므 파탈의 이미지를 소개한다.



시대의 우울 〈최영미/창작과 비평사〉

최영미가 유럽을 여행하며 관람한 미술품에 대한 소개와 그녀의 소감을 적은 글이다.기행 형식을 빌어
쓴 미술 평론집같다.73작의 컬러 삽화를 싣고, 작품들에 대한 그녀의 느낌을 적었다.유럽을 여행한 순으로
각 나라의 도시별로 소제목되며 작품이 소개된다. 미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평소에
한번쯤 들어봤을 작가나 작품들을 사진으로 볼 수 있다. 렘브란트, 고야, 샤갈, 베이컨, 로댕, 브뤼겔등
여러 작가의 작품과 그녀의 해설이 씌여 있다.
평소 미술에 전혀 관심 없었으나 친구의 소개로 읽게 되었다. 책읽기 전에 주의할 것은 그림을 보기
전 작가의 해설을 읽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 느낌을 갖기도 전에 작가의 생각이 세뇌 될 수 있으니까..
나처럼 미술분야에 문외한 사람이라면 궁금했던 작가나 미술품 사진도 볼 겸 한번쯤 읽어 볼 만 하다.



프랑스 미술기행〈이주현/중앙 M&B/17,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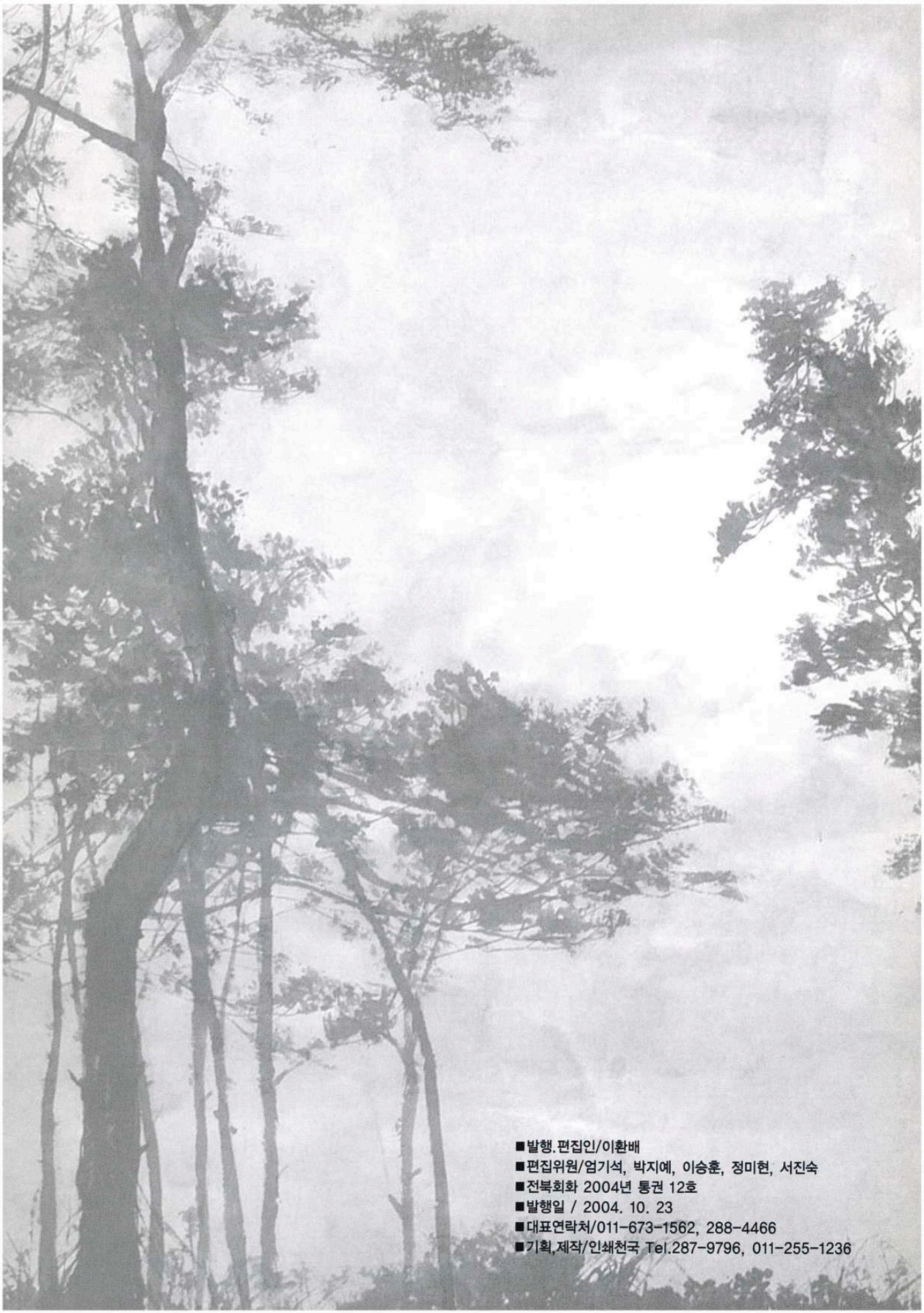
진솔한 문체와 따뜻한 시선으로 서양미술을 알기 쉽게 안내해 온 저자의 프랑스 미술 기행문.
프랑스 전역에 흩어져 있는 화가의 고향, 활동무대, 아뜰리에, 박물관 등을 순례하며 그 속에 스며있는
그들의 작품과 삶을 느끼고 적은 글이다. 개개 미술 작품에 대한 깊이있는 감상과 기행문 특유의
길 위에서의 사색이 함께 어우러졌다. 예술을 장식이나 수단이 아니...

방정업
서진숙
안순금
엄기석
윤 호
이광현
이승훈
이우정
이진숙
이철규
이혜련
이희태
정미현
최병남



편집후기

장마와 태풍 '볼기' 그리고 지루한 비 소식, 물과의 전쟁을 치렀던 올 한해도 들녘 코스모스 가는 즐기 사이로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빛이 난 일이 있다. 「전북회화」회에서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두 번째 전통미술 실기대회를 열었고 그 입상자의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다. 또한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게 되니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일이 아닌가.
전주에서 사상 획기적인 전통회화 실기대회를 가졌다. 전국을 대상으로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를 열었던 것이다. 전라북도의 위상을 한 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시작했으며, 그 참여도가 뜨거웠다. 전통이 희박해 가는 세태의 한 중심에서 심지를 돋우고 생명을 일으키는 자세로 일이 진행되었다. 자축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실기대회에 물심양면 힘이 되어준 미술교사와 학원 관계자분,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각 대학 교수님, 직접 참가한 학생 여러분에게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를 드린다.전시회에 아낌없이 배려해 주신 전주박물관, 옥고를 보내주신 곽석손 교수님, 이동희 교수님, 김판용 연구사님, 김영애 차장님께 감사 드리며 그늘을 마다하지 않은 이철량 교수님, 한 해 동안 없는 살림에 열과 성의를 다한 회원제위께 심심한 사의를 전한다.



■발행.편집인/이환배
■편집위원/엄기석, 박지예, 이승훈, 정미현, 서진숙
■전북회화 2004년 통권 12호
■발행일 / 2004. 10. 23
■대표연락처/011-673-1562, 288-4466
■기획,제작/인쇄천국 Tel.287-9796, 011-255-1236



2004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이 책자는 문예진흥
기금에서 지원 받았음